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북미주 지회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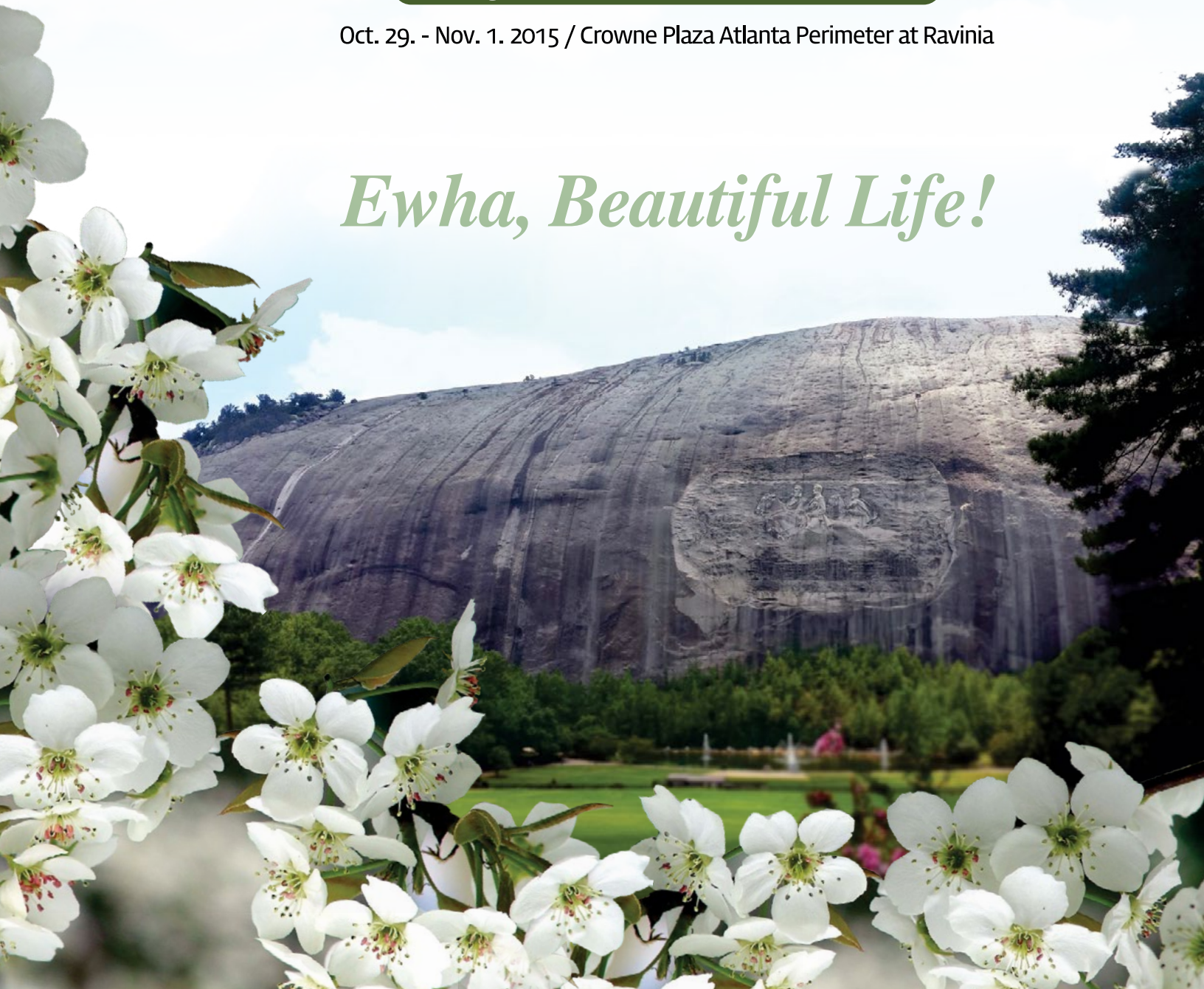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 EWHA ATLANTA 2015

2015 Annual Conference at Atlanta, GA

Oct. 29. - Nov. 1. 2015 / Crowne Plaza Atlanta Perimeter at Ravinia

*Ewha, Beautiful Life!*







이화여자대학교 교훈

# 眞·善·美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은  
 진, 선, 미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 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EWHA ATLANTA 2015!

# CONTENTS

## 인사말

- 004 이화여대 총장 - 최경희
- 005 총동창 회장 - 김영주
- 006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 김정희
- 007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 제갈숙경
- 008 북미주 지회연합회 발전사
- 009 이화여대 총동창회 소식
- 010 201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마치고
- 011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 지회 및 2015 지회장 명단
- 012 지회소식
- 020 우리들의 이야기
- 036 동창회 장학금 소식
- 037 후원내역
- 038 2015 북미주 지회연합회 관광안내
- 039 2015 총회일정 및 참가신청서

*Ewha,  
Beautiful Life!*







최경희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장 최경희입니다.

지난해 가을, 총장이 되어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과의 가슴 떨린 만남을 가진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학교 교정에는 아름다운 목련과 벚꽃, 연분홍 진달래, 노란 산수유 꽃이 가득 피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아름답고 싱그러운 모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학창시절 거닐던 이화 교정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이화 교정과 따뜻한 봄 햇살이 손에 닿을 듯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비전을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화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세계적인 석학을 우리학교의 석좌교수로 모셨으며 글로벌 기업의 CEO를 이화의 홍보 대사로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직·인재·인프라 혁신을 위한 교육, 연구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여 산학협력관에 우수한 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였던 이화 DN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총동창회 해외지회를 방문하였으며, 조만간 일본과 중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변함없는 모교 사랑을 보내주시는 이화가족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속에서의 이화 역량을 확인하고 이화의 큰 힘을 체험하였으며 그때마다 벅찬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화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큰 동창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0월 말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동창 여러분을 만나 뵙고 그동안의 성과도 함께 나누면서 이화의 미래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북미주 지회연합회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는 Atlanta 지회에 큰 관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동창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으로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있으니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창간의 화합을 확고히 다지는 회보 또한 열심히 내주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는 Georgia 주 Atlanta 지회의 김정희 회장과 동창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 회장의 열정적인 리더십과 동창들의 탁월한 결집력 아래 모든 회원이 힘을 합해 열심히 총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까지 들려옵니다.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동창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국제재단과 더불어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있는 이화의 딸들이 이화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활동하는 곳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50~60년 전부터 각 지역의 동창들이 총동창회 회칙에 의거해 지회 인준을 받고 각각 활발히 지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북미주가 넓은 곳이다 보니 지회 또한 개별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생각이 다른 동창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한데 모이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도 생겼지만, 이화의 이름 아래 하나로 합치는 것 또한 북미주에 사는 동창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주 지회 동창 여러분! 모교와 총동창회에서는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북미주 지회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총동창회에서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힘을 실어드릴 수는 있으나, 하나 되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동창들의 사랑과 희생,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과 총동창회장이 해마다 총회에 참석해서 더 발전하기를 응원하고 있으니 이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이화 공동체가 분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 활기차고, 더 화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는 Atlanta 지회를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tlanta에서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총동창 회장



김영주

인사말





김정희(약학 79)

## 2015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여대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김정희입니다.

2015년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미국 조지아 주의 주도(州都)인 애틀랜타에서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애틀랜타는 지미 카터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 마가렛 미첼 등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미국 동남부의 오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애틀랜타에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분들, 김영주 총동창회장님과 총동창회 임원분들, 이화국제재단 임원분들, 북미주에 계시는 이화여대 동창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고 모교 사랑을 마음껏 펼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한국에 있는 총동창회의 한 뿌리에서 시작되어 오랜 세월 동안 북미주에 거주하는 이화여대 동창들의 자매애와 모교사랑으로 크게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북미주 지회연합회라는 큰 나무에 가지가 뻗어나고 그 가지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향기를 내며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Ewha, Beautiful Life!" "이화,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화여대에서 진 선 미의 정신으로 자라온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이화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지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화여대의 발전상도 보고 모교와 동창들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미국 동남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명소 1일 관광과 총회 전 1박 2일 관광(차타누가와 내쉬빌)을 마련하오니 즐거운 여행을 통해 동남부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각 지회의 특성과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Talent Show에도 많이 참가하시어 배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총회를 위하여 현재 애틀랜타지회에 속한 많은 동창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아름다운 가을에 애틀랜타에서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숙경(관현 79)

##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제갈 숙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총동창회 지회연합회 총회가 아틀란타에서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를 주제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자리를 가졌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다시 그 리운 동창들을 아틀란타에서 뵙게 될 생각에 마음 설렙니다.

일 년에 한 번 지회연합회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총회는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모교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이화인들이 북미주 곳곳에서 이화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든든한 선후배간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할 때 마다 이화공동체의 한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임은 이화를 졸업한 동창들이 모여 추억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2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화의 미래를 같이 꿈꾸고 한사람 한사람이 헌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화의 주역이 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배꽃 향기 날리던 교정에서 이화 아이덴티티로 성장한 아름답고 소중한 이화의 가족들입니다. 부디 이번 총회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가치, 이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모교의 발전상에 북미주 전역에 뻗어있는 동창간의 네트워킹 파워에 여러분은 감동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곳 북미주에서 이화의 유산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저는 아틀란타 지회 김정희 회장님과 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총회가 우리들의 특별한 만남이자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아틀란타에서 뵙겠습니다.





#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발전사

북미주에는 현재 30개가 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동창회로서,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지회부터 최근에 세워진 지회, 회원수가 천명을 넘는 지회부터 수십 명의 아주 작은 규모의 지회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refer to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100년사).

1994년에 발간된 이화100년사에는 해외 지회에 대한 총동창회의 회칙과 함께 해외 지회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 북미주에는 1986년의 현황으로 총 25개의 지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양한 지회들이 총동창회 산하에서 오래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회에 속한 동창들이 함께 모여 교제한 연합의 역사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주 여러 지회들이 연합하여 모이기 시작한 것은 모교의 총장님이 국제재단 연례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매년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이화학당 이사장이셨던 김활란 박사님의 헌신으로 이화국제재단이 세워진 후, 모교의 김옥길 총장님은 국제재단 사무실이 소재한 뉴욕을 매해 방문하셨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동창들도 총장님을 만나 모교 소식을 나누고자 각지에서 국제재단 연례회의가 있는 시기에 뉴욕으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모임에 한층 발전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창들이 아예 국제재단 연례회의를 그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모교 총장님도 쉽게 만나고 해당 지역의 동창회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1976년 이후 각 지역 동창지회가 국제재단 회의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지회들이 모여 서로의 소식도 주고 받고, 북미주에 계신 동창들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편리한 만남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그 연례 모임에 참여하는 지회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국제재단 내에 동창 관계를 조직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ARC (Alumnae Relation Committee)가 생겨서 동창들의 참여를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는 멀리 모교 총동창회에서도 참여하여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 시카고에서는 소위 '북미주 총동창회'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동창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모교의 총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총동창회는 동창의 분열을 우려하여 새로운 동창모임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북미주 총동창회'가 결성되므로 동창 모임이 두 개가 되어, 이 때부터 일부 동창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까지 아무런 명칭도 필요 없이 일 년에 한 번씩 총장님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모여 왔던 지회들의 모임은, 2002년 5월 모교 교사리 수련관에서 북미주 지회장들과 모교 총동창회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오랫동안 모여오던 기존의 동창 모임에 '북미주 지회연합회'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1976년부터 지속해 온 연례모임은 2002년 11월 Orlando, Florida 모임부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라 칭했으나, 이는 이전의 연례모임과 형식과 성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북미주에 있는 30여개 지회들 중 총 27개 지회 찬성, 1 지회 반대, 2 지회 기권으로 지회연합회라는 이름, 운영 체제와 회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회연합회'라는 명칭은 총동창회 회칙에 근거하여 북미주 지회와 모교 총동창회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즉,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모교 총동창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북미주 지회들의 연합체로서, 북미주 1만여 동창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총동창회 회칙에 의하면, 이화여자대학교의 '총동창회'는 오직 하나이며,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총동창회 회칙 3조). 그리고 지방이나 해외에서는 총동창회의 회칙을 수락하는 조건 하에 '지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동창회 회칙 24조). 2001년 소위 '북미주 총동창회'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모교 총동창회 회칙에는 (기존의) 해외 지회는 국가별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총동창회 회칙 26조). '북미주 지회연합회'라는 이름에는 미국의 여러 주가 연합하여 미합중국을 이룬 것 같이, 북미주 지역 여러 지회들이 모여 연합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모교 총동창회의 적절한 절차와 승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교의 권고를 무시하고 설립된 소위 '북미주 (총)동창회'와는 달리,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적법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모교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은 '북미주 지회연합회' 연례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2009년 Denver 총회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소위 '북미주 (총)동창회'와 함께 하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세부 실행 계획을 TFT (Task Force Team) 에게 맡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회의 특성을 살리고,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을 지키자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와는 달리, 개개인 중심 동창회 참여와 중앙 집권제를 지향하는 소위 '북미주 (총)동창회'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북미주 지회장들은 두 모임 간의 이견이 줄어들 수 없는 것이라 판단, 2010년 7월 17일 덴버에서 모여 총동창회 회칙에 근거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 '북미주 지회연합회' 연례총회는 2010년 Los Angeles, 2011년 Boston, 2012년 Vancouver, 2013년 Washington DC, 2014년 San Francisco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며, 올 해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Atlanta에서 열립니다.



# 이화여대 총동창회 소식

## 2014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행사 개최

**제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 이인숙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한 2014년도 '이화인의 밤' 및 모교가 주관한 '이화비전선포식'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각 대학(원), 학부, 과, 지회 동창 및 내외빈 12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행사는 1부 '이화비전선포식', 2부 만남, 3부 만찬, 4부 작은 음악회, 5부 행운잔치 순으로 이어졌다.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동창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창들이 모금한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최경희 총장께 전달하며 앞으로도 '기숙사 신축 기금' 모금에 열과 성을 다하자고 참석 동창들에게 호소하였다. 약정서를 전달받은 최경희 총장은 동창들의 모교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 최고의 '이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하여 참석 동창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제 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식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이인숙(초등교육 70)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은 시각장애라는 역경 속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박물관 체험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으로 나눔과 베품, 섬김이라는 고귀한 실천을 보여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이 동창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웃음전도사가 되었다'면서 즉석에서 노래를 열창하여 좌중을 웃게 만들기도 하였다. 4부 '작은 음악회'는 동창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느끼게 하였으며 행운권 추첨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등 흥겹고 유쾌한 '이화인의 밤'을 보냈다.

**2015 정기총회 개최 제17대 신입 총동창회장 김영주 동창 선출**  
 3월 14일 오후 2시 총동창회는 2015년도 정기총회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 삼성 교육문화관 8층)에서 개최하였다. 모교 윤희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장 및 총동창회 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고문을 비롯한 주영희(음악 57), 최명숙(정의 57) 전 회장 등과 대학(원), 과, 지회의 많은 동창 등 22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제 16

대 총동창회 회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동창들께 감사를 표하였다. 장명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이화'가 우수 여학생을 독점하던 시기가 아니므로 훌륭한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불러 모으자고 말하였다. 임원 개선에서는 김순영 전 형위원이 제 17대 신입회장으로 김영주(교육 71) 동창, 부회장에 정준순(약학 72), 김광옥(식영 75) 동창, 감사에 남상택(물리 74), 이영란(체육 76) 동창을 발표하였고, 지난 4년간 총동창회에 헌신한 조종남 회장에게 장명수 이사장께서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퇴임을 아쉬워하는 많은 동창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최경희 총장은 '이화 DNA 네트워크'와 '이화비전 선포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로 뻗어가는 이화의 새 프로젝트를 설명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특히 문과로 시작하여 이공과로 진화하는 '이화 비전'을 위해 제 2산학협력관 건립도 머지않았음을 알려 참석 동창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총회는 교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폐회하였고 참석 동창들은 총동창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앞으로 열릴 많은 행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2015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 장학금 수여, 총 25명에게 전달**  
 총동창회는 3월 14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 삼성 교육문화관 8층)에서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2015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작년 8월과 지난 2월에 졸업한 2015년도 신입 동창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의과대학 오혜숙(의학 78) 동창회장은 '모교의 도약을 위해 동창들의 단단한 결속과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총동창회 신입회원들은 사회 어느 자리에서나 든든하고 자랑스런 이화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환영과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김도아(관현악과) 신입 동창은 답사를 통해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여성 리더가 되길 꿈꾸며 자신이 이화여대 정문에서 보았던 세계는 이화에게 물었고, 이화는 너를 답했다'는 글귀를 인용, 세계적인 이화여대의 답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런 후배가 되겠다고 화답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이지영 대학원 심리학과 동창 등 총 25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봄의 왈츠', 등 축가를 들으며 환영회를 마쳤다.





# 2014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마치고

##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이야기” Atlanta 지회에 큰 관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제갈숙경(2014 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2014년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샌프란시스코 지회 주관으로 10월 30일 (목) 부터 11월 2일 (일) 까지 4일간 Hyatt Regency SF Airport 에서 열렸다. 총회 주제는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로 밤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많은 이화인들의 추억을 새기고 예쁘고 향기로운 비누선물과 함께 색다른 추억도 가졌다.

총회 시작전인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는 John Steinbeck 뮤지엄을 시작으로 Monterey, Carmel, 그리고 Stanford Campus 로망박물관등을 관광했는데 시종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넘쳤던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총회 첫날인 10월 30일 (목)에는 호텔 체크인과 총회 등록을 시작하고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이사회 모임이 있었으며 미주 전 지역에서 모인 동창들의 교제 시간도 있었다. 둘째날 10월 31일(금)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까지 Napa 와인리 관광이 있었으며 합창연습, 종이접기공예, 줌바댄스, 정성애박사 강의 등의 행사가 있는 후 저녁 "총장님과의 만찬"에서는 각양 각색의 옷을 입고 온 동창들의 복장 Contest 와 Costumes Party 를 갖고 장기자랑을 하며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추억여행으로 만찬장은 박수와 웃음이 가득했다. 셋째날 11월 1일 (토)에는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북미주 지

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각 지회장들의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 결산 보고가 통과되었고 국제재단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총회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관광을 한후 이번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례만찬을 가졌다. 연례만찬에서는 각 지회에서 온 동창들의 탈렌트쇼가 있었다. 탈렌트쇼는 매년 있어온 것이지만 해가 갈수록 더욱 기발하고 재미있는 구성을 보여주었고 차기 개최지인 아틀란타 지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장면을 연출하여 영광의 1등을 차지 하였다. 마지막날인 11월 2일(일)에는 총동창회에서 제공하는 조찬으로 시작하여 간단한 일요 예배를 드린 후, "총장님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모교에 대한 궁금증과 해외 동창들의 희망사항을 나누었다.

이번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샌프란시스코 지회에서 11년만에 4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많은 기대감과 두려움 속에 열심히 이룬 행사였지만 아쉬움도 남는것 같다. 선배님들의 후원과 협조로 무사히 끝났지만 젊은 동창들의 많은 참여가 큰 숙제임을 절감했다. 나역시 그동안 소홀했음 지회 행사와 다음에 있을 총회에 선배로서 후배들이 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San Francisco)

##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 지회

년도	주최 지회	지회장	졸업	전공학과	년도	주최 지회	지회장	졸업	전공학과
1976	워싱턴 DC지회	김정자	1962	가정학	1996	보스톤 지회	김경애	1970	의학
1977	대뉴욕 지회	이해경	1950	피아노	1997	토론토 지회	정인영	1968	물리학
1978	시카고 지회	전신애	1965	영문학	1998	애틀란타 지회	김은숙	1968	사회학
1979	대뉴욕 지회	장한희	1953	종교사업과	1999	시카고 지회	윤미혜	1964	사회사업
1980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	1949	가정학	2000	남가주 지회	김대훈	1966	화학과
1981	남가주 지회	김성자	1962	교육학	2001	디트로이트 지회	차승순	1970	기악
1982	시카고 지회	최순자	1966	의학	2002	올랜드 지회	하명숙	1966	체육
1983	대뉴욕 지회	조 연	1961	약학과	2003	북가주 지회	강영자	1964	기독교학
1984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	1962	가정학	2004	휴스턴 지회	김성혜	1972	식품영양학
1985	워싱턴 DC지회	한순정	1959	서양화	2005	클리블랜드 지회	이선희	1970	교육심리학
1986	북가주 지회	이명희	1962	교육학	2006	토론토 지회	강선희	1967	교육학
1987	대뉴욕 지회	이부자	1960	사회사업	2007	대뉴욕 지회	최성남	1970	약학과
1988	토론토 지회	여정자	1967	기독교학	2008	시애틀 지회	이정형	1963	약학과
1989	시카고 지회	최경혜	1960	법학과	2009	덴버 지회	이미옥	1968	국문학
1990	남가주 지회	이희성	1959	영문학	2010	남가주 지회	오명애	1974	장식미술
1991	북가주 지회	최충자	1962	사회학	2011	보스톤 지회	조수현	1976	수학
1992	디트로이트 지회	김정숙	1962	의학	2012	밴쿠버 지회	강유순	1969	약학과
1993	휴스턴 지회	임예자	1965	사학과	2013	워싱턴 DC지회	오혜경	1972	영문학
1994	대뉴욕 지회	임병대	1960	교육심리	2014	북가주 지회	제갈숙경	1979	관현악
1995	워싱턴 DC지회	오성미	1964	영문학	2015	애틀란타 지회	김정희	1979	약학과

## 2015 지회장 명단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	졸업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	졸업
AK	Alaska	이상현	교육	1975	OH	Cleveland	김영미	영어교육	1982
AZ	Arizona	김은미	교육공학	1989	OR	Portland	김미진	도에	1979
CA	N California	제갈숙경	관현악	1979	PA	Allentown	김여흠	영문	1954
CA	S California	장계원	도서관	1976	PA	N.E. PA	조화숙	동양화	1972
CO	Denver	임은혁	약학	1972	PA	Philadelphia	홍정임	영문	1960
FL	Orlando	신 혜	섬유예술	1992	RI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1966
GA	Atlanta	김정희	약학	1979	TN	Nashville	이명애	의학	1976
HI	Hawaii	오해숙	사회	1979	TX	Houston	백화정	교육심리	1987
KS	Kansas	강명숙	제약	1974	TX	Northern Texas	김미리	도서관	1983
MA	Boston	이문희	작곡	1977	WA	Washington DC	김지완	문헌정보	1989
MD	Baltimore	류명숙	조소	1977	WA	Seattle	홍성희	약학	1968
MI	Detroit	박정란	교육심리	1985	CAN	Edmonton	조용욱	국문	1973
MI	Lansing	조미영	동양화	1985	CAN	Montreal	이채화	무용	1976
MN	Minnesota	김성숙	사회학	1985	CAN	Ottawa	한은신	수학	1982
MO	St.Louis	정선주	성악	1968	CAN	Toronto	임영희	정치외교	1977
NY	New York	김기령	영문	1981	CAN	Vancouver	권갑향	사회	1971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1959					





**ATLANTA**

회장 김정희(약학 79)



1980년에 발족된 애틀랜타지회는 현재 60여명의 회원으로 매월 모임을 하고 있으며, 이화골프회, 이회합창단, 선교부, 친교부 활동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에 최복희(성악 73)님 댁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1년간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해주신 동문들께 김정희회장의 감사인사와 임원들 인사에 이어 송미에 지휘, 윤미영 반주로 합창반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캐롤 등 아름다운 화음으로 송년의 밤을 수 놓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회 Talent Show에서 1등한 "바람과함께 사라지다" 무용에 이어 최영주님 부부께서 우아한 왈츠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친교부장 이복희님이 준비하신 재미있는 퀴즈시간후 정성껏 준비해오신 선물교환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손을 높이들어 '이화여대 만세' 3창으로 송년모임을 마쳤습니다.

2015년 1월 신년모임에서는 동창회 회칙개정안 통과와 최(김)정원 회계의 2014년 결산보고, 통과가 있었습니다. 김정희 회장의 새해 연임 인사에 이어 신년계획 발표와 새 임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부회장에 김정원, 총무 및 회계에 최(김)정원, 서기에 최인옥, 감사에 장석란, 이종연, 고문에 조성숙입니다. 10월에 열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발표와 본교 기숙사 건립기금후원과 이화 국제병원 건립 후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간된 주소록과, 이화수첩, 달력, 국제재단발 전사책자 배부하였습니다.

2월 모임은 구정맞이 모임으로 선교부장 김 순희님의 기도로 시작 하였고, 한복을 곱게 입고 온 오은경, 김난경, 김복희, 김정희 동문과 본인이 직접그린 그림이 새겨진 반 두루마기를 입고 온 정호문 화백 으로 더욱 설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특강으로 1993년 사회학과를 졸업 최윤준 동문(UGA 교수 School of Social Work) 의 "가정폭력 실태해결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 등을 통한 여러단체들의 협조를 구하는 설문지를 배부했습니다. 최윤준 교수는 지난 15년간 가정폭력을 겪는 아시안 여성들을 상담하고, 아시안 커뮤니티 내의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윤준 교수는 현재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중

이며, 가정폭력 외에도 이민자들의 약물 중독과 HIV 문제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3월 모임에서는 GA Gwinnett College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례동문(교육심리 79)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영상 자료와 명쾌한 강의로 웃음을 자아내고 동문들의 행복 지수를 최고로 올려놓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 창시된 이론으로 행복심리학이라고도 불리우며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상태를 이룰때 삶의 행복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4월은 "선교의 달"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황성희 전도사님(유아교육 76)의 여성선교사역인 "과테말라 젓염소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테말라 마야원주민의 비참한 생활을 사진으로 보고 생활을 도와주기위해 각가정마다 젓염소 한마리씩 분양하여 교육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젓염소사역"을 시작하신 전도사님과 2008년부터 은퇴자금을 모두 들여 단자니아 선교사로 가셔서 믿음 유아원 운영 사역, 로즈레디 고아원 방문 사역, UAUT 종합대학사역, 어린이 거리 전도 사역, 음집빌리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홍신옥 선교사님(종교음악 73)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모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두 분의 사역에 동참하는뜻으로 동창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 하였습니다.



**BOSTON**

회장 이문희(작곡 77)



유난히도 길은 보스톤 겨울이었습니다. 3일이 멀다하고 폭설이 오다가, 드디어 주지사의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동창회 모임도 연기를 서너차례한 후 첫미팅을 4월 10일에야 갖게되었습니다. 눈으로 인한 사고로 불참하신 동창님을 애석해하며, 모인 동창님들간에 서로 반갑고 정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도 보스톤 동창회에서는 연례로 하는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곳에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중 사모님이 이화여대 동문이신 분들 우선으로 선교비 지원. ●이화여대동문 자녀를 위한 장학금 수여. 2014년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여 신은경(법학 88)님의 따님인 유니스 노에게 수

여되었고, 올해는 대학원생 이상으로 할 예정. ●어린 학생들을 위해, MIT에서 개최하는 수학경시대회를 후원하는데, 후원금은 해마다 다를 수 있음. ●뉴잉글랜드 한글학교협의회 글짓기대회에도 보스톤이대 동창상으로 후원금을 지급. ●보스톤 심포니가 여름동안 산속에 들어가 연주하는 곳인 Tanglewood Trip을 8월 8일에 가기로 했으며, Mahler 심포니 #8 천인교향곡을 Rehearsal Program으로 결정. 연주가 끝나면 즐거운 점심 후, Williamstown으로 이동, Williams 대학 내에 있으며 Renoir작품을 많이 소장한 Clark's Museum을 관람 예정.

위의 연례행사와 더불어 아래의 2가지 작업도 새로운 행사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화 해외동창기금 백만불모금운동을 위하여 김경애(70 의학) 선배님을 주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동참하실 동창님들을 찾아보기로 함. ●현재의 보스톤동창 주소록을 update하여 새주소록 발간할 예정.

이 자리를 빌어 보스톤동창회의 이사로 또는회원으로 물심양면 지원하여 주시는 동창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총회를 위해 열정적 수고로 일하시는 아틀랜타 지회의 회장님이하 모든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CINCINNATI

회장 김영채(영문 59)



지루하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15년 첫모임을 3월 13일 "수라"에서 갖었습니다. 긴 겨울 동안 있었던 뉴스들을 나누며 특히 할머니들의 손주들 사진자랑 등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Cincinnati 지회는 1년에 4회 친목의 모임을 갖고 3, 5, 9, 11월 둘째 금요일에 모입니다.

금년에도 잊지 않고 동창회비를 서울 총 동창회에 전달하고 "선배라면" 장학금도 국제재단에 보냅니다. 2016년 이화130주년을 위한 "One Million Dollars" Fund Raise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작으나마 알찬 겨자씨같이 이화의 정신 진선미를 향상 가슴에 담고 사는 우리 신시네티 지회입니다.

*Ewha, Beautiful Life!*



## CLEVELAND

회장 김영미(영어교육 82)



클리블랜드 지회는 1974년 설립 이래 현재 약 70여명의 동문들이 이 지역에 계시고 약 20여명의 활동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화 만남"이라는 명칭으로 약 20여명의 동창회 회원들이 모여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문 가족들의 경조사를 돕고 동창회 행사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기금을 모아 지역 사회 봉사 및 이화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년 새해 1월 31일에는 김정진동문대에 모여 연초 행사인 옷놀이를 하며 2015년도 이화만남의 활동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화 만남의 주요 행사로는 매년 3월에 이화의 후배들이 교환학생으로 있는 Baldwin Wallace 대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격려하며 후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오찬을 나눕니다. 추석때가 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경노잔치가 있으며 11월에는 동문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하여 연례 만찬을 가지며 친목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 DENVER

회장 임은혁(약학 72)



을미년 봄이 활짝인 지금 이화 텐버의 십년을 살펴 봅니다. 많지 않은 인원으로 북미주 총회를 치뤘고, 아직도 Roster는 50명 남짓하나, 계속 만나는 동창은 열서넛이 넘지 못 합니다. 우리는 작게는 이화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이화인 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고매한 교양과 여성으로서의 긍지, 사회인으로서의 자각을 갖추고, 여기에 일하는 능력을 더한 이화인, 이것이 어머니이자 아내이고, 수신제가하며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다. 선진국으로서 미국이 뒤떨어져 있는 여성 대통령의 꿈이 미국에서 실현 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덴버 지회는 금년에도, 3월초에 신년 모임에 이어, 오월에 피크닉을 하고, 주제를 택하여 모임을 한번 하려 합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도 하고, 모교에도 후원을 드릴 계획입니다.



**HOUSTON**

회장 백화정(교육심리 87)



저희 휴스턴 지회는 1989년 김옥길 전총장님의 휴스턴 방문에 즈음하여 발족되었고,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6월에서 8월의 여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매달 한번씩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회는 12월 첫 주에 연말모임을 겸한 지회 총회를 영국식 티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지난 1년간 회계보고, 지회연합회 총회보고와 2016년도 휴스턴 개최예정인 총회를 앞두고 부회장에 김명옥님(경영 75)을 추대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감각적인 의상으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우어준 유미화(영문 66졸), 문희채(영문 72) 동문을 best dresser로 선정,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월 모임은 김성혜동문(도예 84) 맥에서 떡국과 빈대떡 등을 먹으며 새해 안녕을 기원하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에는 구정을 맞아 15년째 차질없이 진행해오고 있는 떡국잔치를 한인노인회관에서 120여명의 노인회원들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또한 사정이 허락치 않는 동문들은 현금 기부 형식으로 올해도 떡만두국, 잡채, 전, 나물 등 푸짐한 음식들로 한인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은 Houston Museum of Fine Arts의 부속 박물관인 Rienzi에서 가졌습니다. Rienzi는 유럽 회화와 장식미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저택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4월은 졸업시즌에 맞춰 매년 진행하고 있는 휴스턴 지역 한인 여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을 위한 기금모금 형식으로 Garage Sale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회는 가족같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 모교 발전과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OS ANGELES**

회장 장계원(도서관 76)



2014년 9월 9일 남가주지회 추석 모임으로 Los Angeles County 박물관에서 있었던 조선시대 오백년 미술전을 관람했습니다. 전문 큐레이터의 한국어 작품 설명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진가를 이해하고 긍지를 느끼는 행사였습니다. 미술전 관람 후에는 식사를 같이 하며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2014년 12월 4일 마지막 크리스마스 골프 토너먼트를 Buena Park 소재 Los Coyotes Country Club개최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Buena Park소재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1부 정기총회, 2부 만찬, 3부 이화인의 밤 순서로 진행되었고 1부는 이보경(생미) 동문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 이사회보고, 재정보고, 동문자녀 3명 (Daniel S. Lee, Sohee Oum, Andrew J.Lee)에게 장학금 수여, 참석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2부 만찬에 이어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사회로 3부 이화인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동문들이 숨은 끼를 발휘해 고전무용, Ballroom Dance, Line Dance 등의 공연을 펼치며 즐겼으며 Raffle Ticket 추첨을 통한 푸짐한 선물 증정도 있었다. 또한 올해는 5년에 한번씩 나오는 동문주소록이 발간되어 2015년 동창회비를 납부한 참석자들에게 동창수첩과 함께 배부되었습니다.

2015년 1월 4일 건미회의 10명의 회원들이 신년회를 기념하여 떡국 잔치와 율농이를 하며 선후배 간 친목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회원으로 배순자, 이호훈 동창 참석하였고 새해 소망과 계획, 그리고 건미회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5년 두번째 모임은 3월 1일 던지네스 개점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동문합창단이 1월 10일부터 엄인용 지휘자님, 주희정 반주자님을 모시고 정기연습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11시 LA 동양선교교회에서 모이는 합창단 모임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정기연주회는 2015년 9월 20일 월서 연합감리교회에서 공연하게 될 예정입니다.

니다. 2015년 1월 17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연례행사인 제 4회 "선후배 만남의 날"이 Garden Suite Hotel에서 열렸습니다. 현 김혜숙(72)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유임되었습니다. 총 37명이 모인 이번 모임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각 졸업 연도의 동기들 모임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동창들의 여러가지 소식들을 나눈 후 한국이 20년 만에 ICN 개최지로 선정된 소식 및 재외 국민 간호사 한국초청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 된다는 소식에 박화자 선배를 중심으로 여러 동문의 오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음 행사로는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연례 피크닉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17일 김영애 (간호 74) 동문의 제2 수필집 『사각지대의 앵무새』 복사인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미주연합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 동창은 이 책으로 2014년 미주펜 문학상과 한국수필 해외 작가상 두 개의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 동창의 다른 저서로는 2011년 출간한 제1 수필집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가 있으며 수상 경력으로는 크리스천 문인협회 소설부문상, 문예운동, 수필시대 신인상, 서울문학 제정 오늘의 작가상, 무원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11일, 2015 남가주지회 임원 회의가 장계원 회장택에서 열려 2015년 행사 계획과 임원 선정을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 행사로는 3월 31일 제12회 총장배 골프대회, 4월 산타바바라 일일 관광, 5월 야유회, 10월 29일~11월 1일 북미주 지회연합회 애틀랜타 참가, 11월 동창회보 발송, 12월 연말 송년회 (월서 컨트리클럽 예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 동창회 기금 \$100,000 운용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사회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이화여대 총장배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가 로스카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화 동문들을 비롯해서 남편, 사위님들 그리고 게스트까지 참가해 이화인 한가족의 축제의 한마당을 가졌습니다. 수상자는 챔피언 미셸 최, 1등 조앤 주, 2등 리사 리, 3등 클라라 정, 4등 케린 김, 장타상 제니 리, 근접상 린 김, 그레이스 김, 줄리엣 리.

한편 19th홀 시상식에서 한나리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모처럼 7080시절의 정겨운 음악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샌디에고 일일관광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산타바바라 일일관광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4월 25일(토) 산타바바라, 솔뱅, 와이너리를 여행하고 Los Angeles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 MINNESOTA

회장 김성숙(사회학 85)



2월 21일 한현숙 동문 집에서 올해 첫 미네소타 이대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동문이 미네소타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해주어 청소년을 둔 동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선물들을 준비해 온 한진혜 동문 덕분에 빙고게임을 하여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5월에 4일간 열리는 민속제전이라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이 행사의 전시부스에서 이화동문들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맛난 한국음식들을 푸짐히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NEW YORK

회장 김기령(영문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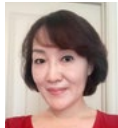


11월 14일 뉴욕동창회 50주년 기념을 겸한 2014년 연례만찬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에서 소재 대동연회장장에서 있었습니다. 본교에서 보내온 최경희 총장님의 축하인사를 시작으로 동창회를 이끌어온 대선배님들에 대한 공로장 시상, 장학금수혜동문의 감사말씀이 있었으며, 음악전공동창들의 오페라 아리아와 피아노 연주가 돋보이는 가운데 즐겁고 보람된 만찬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2014 연례만찬평가회겸 임원, 이사간담회가 각각 있었습니다. 1월 13일, 이화 Bergen PAC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약식이 뉴저지 소재 버겐팩(Bergen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버겐팩 사장 Dominic Roncace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협약식에서 뉴욕임원과 본교에서 온 신혜빈(영어영문 12), 김수인(경제 12) 인턴들이 인사를 나누며 격



려를 해준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1월 17일, 2015년 신년 하례식 이 그레 벅 소재 최성남(70 약학) 이사장 태에서 3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1부에서는 김 기령(81 영문)회장의 지회소식과 학교 소식, 특히 최 경희 총장님의 사업계획을 들으며 뉴욕동창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과 서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고 2부에서는 최성남 이사장( 지회연합회 고문)과 유덕향(72 약학) 지회연합회 이사가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역사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새로 동문회에 동참한 박효진(07 피아노)동문 부부의 피아노연주가 분위기를 돋우어준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2월 7일, 북부 뉴저지 지역모임이 조문경(86 영문)지역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시은(90 체육)동문의 '호감주는 여성리더'라는 강연과 선후배간의 정다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10일, 장화인 (69 교심)전 이사장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정기총회에서 김기령 회장(81 영문)은 본교 기숙사 신축건립기금 모금, 연례만찬과 음악회 개최, 지역모임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UN회의차 뉴욕에 온 이숙진(86 신방)동문의 최근여성문제 발표가 있었으며 김인순( 90 대학원 무용)의 다함께 댄스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4월 22일, 대뉴욕지구 동창회 장학금 1(뉴욕동포대학생 자녀 / \$2,000) 과 장학금2 (대학원 유학중인 동문 / \$3,000)에 대한 공고를 현지 한국·중앙일보에 공고했습니다.



**ORLANDO**

회장 신혜(섬유예술 92)



지회 올랜드 지회의 활동 중인 총 회원은 대략 30명정도 입니다. 일년중 총 4차례의 모임을 가져왔으며 음악회, 미술 전람회 또는 공예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올랜드 지회 회원원들의 모임은 지회장인 신 혜회장의 섬유전시회장에서 섬유예술에 대한 기본적 강의와 관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wha, Beautiful Life!*



**PHILADELPHIA**

회장 홍정임(영문 60)



필라델피아 지회는 매달 첫번째 월요일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모임을 통해 동문들 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가능하다면 좋은 배움의 기회를 함께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눈이 많이 와서 동창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4월에는 봄을 맞이하여 '봄의 시' 감상과 양경자 동문과 김원경 동문 지도 하에 '봄 노래' 배우기를 하였고, 5월에는 꽃꽂이 강좌 시간, 6월에는 뉴저지에 있는 '조각공원'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PORTLAND**

회장 김미진(도예 79)



13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특히 조병삼(국문과 67) 동창님께서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Florida에서 작년에 이사 오시어 조금은 걸음이 불편하셨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젖어서 시간가는 것도 모르고 웃음 꽃과 이야기 꽃을 피었습니다. 특히 푸짐한 한식에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으며 후식으로 김회장이 과일 꽃을 예쁘게 만들어 와서 모두 허리띠를 푸르고 귀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배양희 선배님께서 병환중이신데, 동창회에서 좀더 방문하고 소식을 자주 전하는 등 동창들간 친목을 돈독히 하자는 의견에 일치했습니다. 서울 우석대학에 재임중인 유수옥(유아교육 77)동창이 PSU에 교환 교수로 오셨지만 Florida 세미나 참석때문에 이번 모임엔 불참한다는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꽃 피는 봄에 만나기로 하고 다음 모임엔 더 많은 동창이 모여주기를 바란다는 회장의 부탁과 함께 인사를 하며 헤어졌습니다.





## SAN FRANCISCO

회장 제갈숙경(관현 79)



10월 30일(목)~11월 2일(일)까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San Francisco Airport에 위치한 Hyatt Regency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교에서 오신 최경희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님들과 함께 저희 지회 선후배 동창님들의 협조로 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4년 12월 6일(토), 정기모임 및 연말 파티가 오클랜드 고기 타임에서 40여명의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때 공연했던 놀부전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창들을 위해 재공연 하였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 1월 3일 (토),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Hillsborough에 있는 광정연 동창택에서 3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새해 연중행사를 계획했습니다. 5월 모교 방문 및 여행에 관한 내용의 정기모임 후 윗놀이와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 2월 7일 (토), Hillsborough에 있는 광정연 동창택에서 33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정기모임 후 명원문화재단 (CA & AZ) 지부 원장이신 이영미 선생님을 모시고 차를 마시는 예절, 다례와 다식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영미 선생님께서 연잎차와 다식, 그리고 인원 수 만큼의 다기를 준비해 오셨고 동창회에서는 점심, 떡, 과일을 준비하고 호박죽은 집 주인인 광정연 동창이 즉석에서 만들어 이영미 선생님과 우리 동창 모두에게 대접을 해 주었다. 이영미 선생님과 함께 연잎차를 만들고 다식도 직접 만들어 음미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 SEATTLE

회장 홍성희(약학 68)



1972년에 탄생된 씨애틀 동창회는 40여 년간의 시간을 거치며 동문 한분 한분의 이화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화목하고 단결된 오늘의 동창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첫 모임은 1월 24일 Federal Way 가든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기도, 교가합창, 새 임원단 소개, 회장 인사말, 신년도 계획서 발표, 2014년 회장단에게 감사장 및 선물증정, 회계 감사 발표, 각 부서 별로 소개 후 처음 나온 동문들과 오랜만에 나오신 동문들의 인사와 소개로 만남의 기쁨속에 화기에애한 모임이었습니다. ●골프부 : 매주 월요일 라운딩, 봄·가을 골프 여행 ●등산부 : 매월 1번 등산, 매주 월요일 St. Edward Park 산책 ●문화부 : Art Exhibition, Concert 단체 관람 등을 주도 알선 ●사진부 : 월 1회 야외촬영, 연말 전시회 계획 ●여행부 : 9월 Ashland Oregon, Shakespeare Festival 관람. 외국여행 계획

3월 모임에는 State Health Insurance Benefits Advisor로 근무하시는 조선용(건강 교육 88)동문이 Medicare와 Obama Care에 대하여 강의가 있었고, 4월 모임에는 신경림(장식미술 80, 한의학 박사) 동문의 대사 증후군에 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6월에는 고문이신 김예자 (신문 64)동문 맥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8월 야유회, 9월 바자회, 10월 Atlanta 총회참가, 12월 송년파티, 계속 이어질 즐거운 만남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기금은 동창회비, 이사회, 바자회 이익금, 광고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로는 Sharon Woman Shelter, Hmeless Shelter에 매년 Donation을 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어과에 \$1,000 장학금을 주고 있고 국제재단에 씨애틀 동창회 장학기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 ST. LOUISE

회장 정선주(성악 68)

저희 세인트 루이스 이화여대 동창회가 발족한지 올해로 18년이 됩니다. 초대 회장단은 회장 조련순(56입 영문) / 회계 최경선(61 영문) / 서기 안성은(90 영문) / 역대 이사장 김귀현(56 영문) / 역대 회장 정선주(68 성악), 김혜영(79 간호), 정훈순(62 성악), 양혜자(74 교심, 76 대학원). 현 회장단은 이사장 최경선(61 영문) / 회장 정선주(68 성악) / 회계 이수자 (63 가정과) / 서기(65화학) 등록된 동창들은 30여명 이지만 정기모임에 나와주시는 동창들은 적습니다. 정기모임은 일년에 4번 있고(3월, 5월, 10월, 12월) 12월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모이는데 이화 사위님들이 이날을 기다리십니다. 매달 모이는 "진선미"(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화 동창들만이 느낄수있는 이화의 "정"과 "배꽃의 향기" 를 느끼며 동창들간에 경조사를 같이 나누고,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얻고, 이 미국 생활에 오아시스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재숙(72 의대) 세인트 루이스 지역 "재향군인 병원 재활 의학과 과장으로 있는 선재숙 동문이 2014년 500여명의 의사들 중에서 "올해의 의사상"을 받았습니다. 선재숙 동문은 2010년에도 미국 전체에서 " Best Doctor"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최혜영(86 생활 미술) "세계 아동 진도회" 디자인 팀장, 최혜영 동문이 디자인한 "First steps God's plan for me" 가 전 세계로 발송. 최혜영 동문의 따님 김주혜양 Swarthmore College 4년 장학생으로 합격 축하(학비, 기숙사비, 책값 등등). 독서 모임에서 이화여대 국제재단 40년사 "믿음의 강"(신장현 동문 57 교육과 저술) 의 비평회를 가졌고, 최경선 동문의 "Book Review"에서 김활란 박사님의 이화여대를 위해서 50, 60년을 내다보시는 통찰력에 감탄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강"을 의미 있게 읽고 이화여대 국제재단이 우리의 보물 인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화동문 김국자(67 사대가정) 동문의 수필집 "들리는것 들리지 않는것" 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 지회는 13년 넘게 모교에 동창 회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336). 모교 선교부에 헌금을 보냅니다. 대강당 의사(16명), ECC(\$5000), 과주기금(\$1000), 선배라면, 해외동창기금 헌금등 적극적으로, 적으나마 모교 발전에 성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지회에서 이화 국제재단에 설립한 "세인트 루이스 장학기금"(\$700 시작)이 현재 \$ 13000이 넘었습니다. 이곳 한인 회에도 지역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 장학 기금과 불우이웃 돕기에도 성의를 표합니다. 저희 세인트 루이스 지회는 우리가 이화여대 식구가 된 선택 받음에 감사하며 자랑스런 우리 후배들, 교수님들, 이화여대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총장 선생님, 총 동창회장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최경희 총장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 이화여대가 세계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TEXAS (NORTHERN)**

회장 김미리(도서관 83)



2014년 5월 31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화 동문들 22명이 모여 총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동창회는 이화의 창립기념일인 5월 31일 메이 데이 메이퀸을 뽑던 이화의 옛전통을 추억하며 금년 구순이 되시는 최연장자 최영방 동문님(기약 49)을 텍사스의

'아름다운 이화동창'으로 축하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꽃다발과 이화 기념품 선물 '아름다운 이화동창' 기념패를 드리며 동문의 옛 이화 추억의 사진들을 감상하였고 Surprise! 생일 케익과 축하 노래로 따뜻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WASHINGTON DC**

회장 김지완(문헌정보 89)



워싱턴 디씨지역 총동창회는 지난 겨울동안에도 많은 동창들의 성원아래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연중 가장 큰 행사인 2014년 디씨지역 동창회 총회 및 연말파티가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저녁 백여명이상 참여한 가운데, 버지니아 맥클레인에 위치한 Tysons Marriott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김지완 전 회장의 연임 인준이 있었습니다. 김지완 동문은 올해에도 동창회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고, 작년에 그동안 안나온 동문들 모으기에 힘썼다면 올해에는 더욱 다져진 기반위에 내실을 기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게임과 경품 나누기 및 지역 동창들의 친목을 다지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학을 나누는 모임으로 만나오던 동호회 모임이 2015년부터는 새로운 명칭 "이화 문화 클럽" 으로 거듭나면서 매 달 한 번씩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은 1월 16일 금요일, 기존에 참석하던 동문들 외에도 많은 새로운 선배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식사도 같이 하고 목도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목도리 강습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21일 토요일에 가진 두번째 모임은 "미국 계관시인들의 미국 시 사상"이라는 주제로 백 순 강사님을 초청하여 저서인 "미국 계관 시인론"에서 한 시를 발췌하여 우리의 문학세계를 넓히는 특강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동문 이신 안경미 동문 (의학 69)의 부군이기도한 백 순 박사님은, 서울대 법대, 고대 경제학 석사 이후, 오하이오대와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오랜 교수생활 및 미 연방정부 노동성의 선임 경제학자직으로 은퇴하신 석학이십니다. 멋진 특강과 더불어, 지난 달 목도리 강습에 참석한 동문들이 자신이 만들었던 목도리를 멋지게 겨울 코트와 연출하여 서로의 미적감각과 패션센스를 뽐내는 화기애애하고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30일 금요일에는 이사장 (이영주, 간호 72) 자택에서 2015년 이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인 신임 이사장 선출이 있었고 신임 이사장으로 39대 지회장을 역임하였던 오혜경 (영문 72) 동문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2015년도 동창회의 활동 방안등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 모교 신축 기숙사 건립 기금 기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워싱턴 디씨 지회" 이름으로 만물을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월 3일 화요일부터는 손현숙 (화학 83) 동문의 지도 하에 라인댄스 강좌가 매주 화요일 실시합니다. 손 동문의 열정적이며, 동문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개인 동창소식으로, 함계선 (피아노 79) 동문이 "있는다는 것, 잃는다는 것"이라는 수필작품으로 워싱턴 신인 문학상 수필부문 작가를 수상하였으며, 김종숙 (사학 93) 동문이 "오월과 유월 사이"라는 소설로 워싱턴 신인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디씨지역 이화여대 동창회는 사상최대의 추위라는 올 겨울을 동문들 간의 친목과 건문을 넓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여러 모임들을 가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CANADA TORONTO

회장 임영희(정치외교 77)



안녕하세요? 이대 동문회 토론토 지회의 임영희입니다. 저희는 2015년 1월 15일 임원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동문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임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과 사업계획들에 대하여 논

의 하였습니다.

3월 9일 45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정기 총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토론토 주재 대학 동문 골프 대회 주최권과 새로이 시작되는 여행 동호회의 행사인 튜립 관광 등의 행사에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한 해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 모임인 햇불회가 2월 10일 한명실 목사님, 4월 14일 조경자 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동문들의 참석으로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2부는 노래교실, 건강 강좌 등 뜻있고 귀한 시간을 가지며 각자 준비해 온 이화표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31일에는 성경공부반 모임이 있었으며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 이화 토론토 동문회의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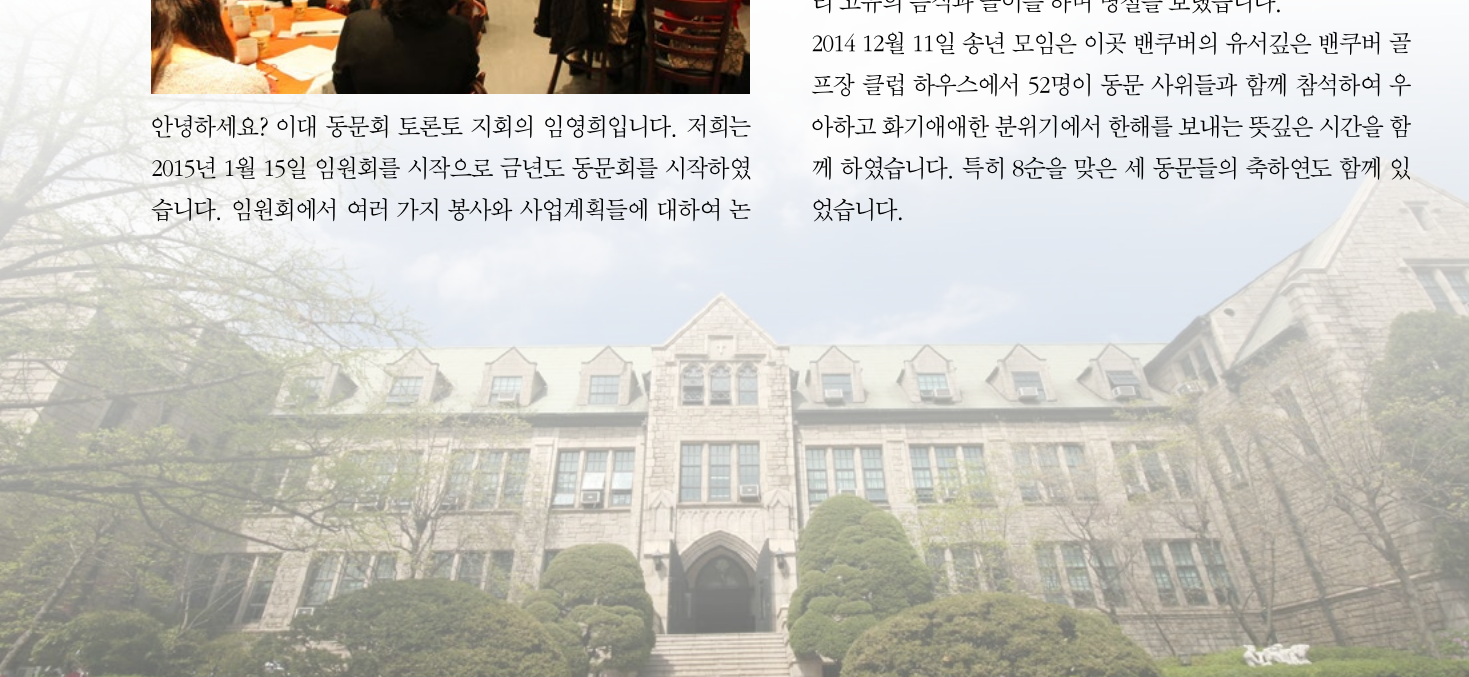
### CANADA VANCOUVER

회장 권갑향(사회 71)



2014년 7월 25일 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Elizabeth Park에서 동문 45명 모여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운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추석모임과 2015 2월 14일 설 모임은 회장 자택에서 우리 고유의 음식과 놀이를 하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2014 12월 11일 송년 모임은 이곳 밴쿠버의 유서깊은 밴쿠버 골프장 클럽 하우스에서 52명이 동문 사위들과 함께 참석하여 우아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해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8순을 맞은 세 동문들의 축하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62년 교환교수 Ms. Abraham(인도)과 함께. 사진 왼쪽부터 허흥순, Abraham, 박외선, 성정순(필자), 이경환

# 인도에 교환교수로 가다

글 | 성정순(체육 49)

1960년 11월 김활란 총장님의 호출을 받고 총장실로 올라갔다. "혹시 인도에 1년간 교환 교수로 갈 생각이 있는가?"라고 하셨다. "생각해 보겠습니다."하고 나왔다.

그 당시 둘째 딸이 돌이 되기도 전에 두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1년간 미국을 다녀 온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다시 1년간 가족을 떠난다는 것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남편과 의논을 했다. 남편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1년쯤 당신이 없어도 참을수 있다며 좋은 경험이니 떠나라고 권유를 했다.

1961년 4월에 인도로 떠났다. 당시에는 인도와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맺어지지 않아서 영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았다. 1886년 미국 선교회에서는 3기관을 창설하였다. 한국의 이화학당과 인도의 여자학교 Isabella Thoburn, 그리고 세계기도회. 그래서 3기관장들이 모여서 75주년(Diamondjubilee) 기념 사업으로 두 여자 대학의 '총장님들의 교환방문'과 '일 년 간의 교환교수'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ITC에서는 체육교수가 안식년이라 내가 4월에 가고 그 대학에서는 서양사 교수로 Miss Mary Abraham 이 9월 학기부터 오게 되었다.

Isabella Thoburn 대학은 인도 중북부에 위치한 Lucknow 라는 도시에 있는 여자 대학으로 명성 높은 역사적인 아담한 대학이었다. 총장은 인도 여성이고 부총장과 사무처장은 미국 선교사였다. 남자교수는 3명으로 통근을하고 여자 교수는 결혼한 음악교수 한 분이고 총장 이하 모두가 미혼 여성으로서 교수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모두가 기숙사에 있었다. 학교는 5시에 기상, 6시에 식사하고 7시-11시까지 수업을 하고 11시 30분에 점심식사를 하고 3시 까지는 쉬는 시간이다. 3시에는 차와 간식을 하고 4시부터 6시30분까지 수업을 다시 시작한다. 7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교수들은 8시에 모여서 저녁기도회를 하면 일과가 끝난다.

나는 수업이 없는 날은 인력거를 타고 가까운 곳에 관광을 다니기도했다. 체육 교과목이나 지도 내용은 미국인 교수가 스포츠 중심의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 년 동안 미국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경험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내가 가서 새로운 교과목 등 많은 포크댄스와 에어로빅 체조 등을 지도했다. 학

생들은 새로운 댄스를 좋아했다. 학예회 같은 발표회를 했을 때는 성경에 나온 "욥의 일생"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발표하였고 교수들을 위해서 춤과 무용극으로 한국의 "시집가는 날"을 연출하여 많은 갈채를 받으며 즐겼다. 의상은 내가 무용복과 한복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가서 여자교수들을 모두 동원하여 출연 시켰다. 총장이 시어머니로 분장하여 모두들 즐겼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나는 활옷을 입고 신부춤도 추고 신랑 옷을 입고 신랑춤도 추며 폐백을 드릴때는 신랑은 다른 사람을 시키면서 신나게 연출했던 생각이 난다.

대학의 운동회를 하는 날 이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부터 전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각 숙소에서부터 프랑카드를 들고 음악에 맞추어 행진하고 운동장으로 나와서 개회식을 더워서 못 견디어 극장만이 냉방시설이 있어서이다. 숙소에는 천정에 큰 Fan이 돌아가지만 역시 더운 바람이 돌고 있어서 시원하지가 않다. 인도에는 계급차별이 심하다. 내 방을 청소하는 데도 침대나 책상들을 치우는 사람, 방바닥을,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 밖을 청소하는 사람 등 모두가 다르다. 오랜 세월동안의 차별계급 생활이 몸에 배어서인지 교수들 간에도 학생들 사이에도 거만한 성격들이 눈에 띄게 보였다.

6월 한 달은 방학이었다. 나는 부학장과 함께 인도 북쪽에 있는 Cashmere라는 곳에 가 큰 호수에 떠있는 House - Boat에서 한 주일을 지내고 두 주일은 산 속에서 열리는 "Christian Art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그 곳은 대학교수로 계신 미국 목사님 부부가 하시는 것을 크리스찬 음악, 연극, 작가, 무용 등의 학교 교사나 교장, 교회지도자 교수들 18명의 소수의 모임이었다. 그 중 인도 무용선생 한 분과 나는 서양 무용 부문을 하였다. 성경읽기 등을 하면서 성경속에서 자기 전공의 작품을 창작하게 하고 발표회를 한다. 음악과 무용은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발표회도 했다. 여러 방면의 좋은 작품과 좋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뉴델리에서 오신 여자 교장선생님 덕에 머물며 뉴델리 근방의 관광도 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그 교장은 연극의 각본을 쓰시는 분이였다.

내가 6월에 Cashmere를 갈 때다. 오후에 기차를 탔는데 인도는 여자와 남자 칸이 따로 되어있고 차 칸끼리 통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2등 칸을 탔는데 여자들만 있었



1961년 김활란, 김옥길, 메리 아브라함

다. 긴 의자에 누어 있으면 아무도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도 못한다. 기차가 정거장에 정거하면 남자들이 모두 내려와서 먹을 것을 사 갖고 여자칸 창가로 모여 온다. 가족들을 챙기러 나온다.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날이 저무니 여자들이 하나 둘 내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 여자들을 태우려고 남자들이 와서 문을 열라고 두드린다. 나는 문을 꼭 잡고 열어주질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다른곳으로 가라고 손짓하며 열어주지 않았다. 한참후에 경찰인지 역장인지 정복을 입은 사람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해서 열어주는 에피소드까지 있었다. 열여덟 시간을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가야했다. 한번은 교수들과 기차로 여행을 가다가 어떤 역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모두 손으로 먹는데 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기에 스푼을 달라고 하니깐 없었다. 티스푼이라도 달라니까 유난히 작은 것을 주어 힘들게 밥을 먹었다. 그 후로는 여행다닐때는 꼭 수저부터 챙겨다녔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와 모스림 교인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싯이즘, 불교, 제인교, 파쇄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의 생활 양식 의식들이 다르고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 결혼도 힌두교인은 돈이나 재산을 신부가 갖고 가고 모스림은 전 반대다. 결혼식은 주로 밤에 하는데 특히 모스림 결혼절차가 매우 흥미로웠다. 신랑만 혼자 놓고 식을 올리고 신부 얼굴은 첫날 밤에 거울을 통해서만 살짝 본다. 그리고 3일 후 신랑 집에 가서야 첫날 밤이 된다고 한다. 4월 말 인도에 수많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서 5월 초에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트랩 아래 김활란 총장님과 사무처장이신 서은숙 선생님이 계셔서 다른 분을 마중 나온신 줄 알았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하시면서 두손을 잡아 주신다. 나는 너무나 황송하여 몸 돌바를 몰랐다. 귀빈실을 통해서 그 곳까지 나오신 것이였다. 내가 떠날 때도 총장공관 뜰에서 송별회를 해 주셨는데... 아직 병아리같이 어린 나를 그렇게 환대를 해 주시던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아서 어떠한 모임에도 많이 쫓아다니곤 했다. 색다른 생활양식들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즐기며 축복 받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김활란 스승님, 김신실 스승님께 감사할 뿐이다. 또한 미국으로 인도로 보내며 희생해준 남편에게도 감사 할 따름이다.



그 많은 사연과 추억들을 쏟아 놓으려니 가슴만 벅차고 두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고 기독교 문학이라는 가슴 설레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옥길 스승님의 첫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스승님은 특유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로 응답을 대신 하셨습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듣고 생각 했습니다. 어느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 아,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0-21)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곁에 우리 곁에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를 함께 낭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대강당 예배시간 김활란 스승님의 설교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인자하고 단정한 모습에 스승님 특유의 낭랑하고 푹푹한 음성으로 마태복음 6:26-34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1968년 싱가포르 Botanic 가든에서 김옥길 총장, 정충량 교수, 본인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는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였고 지금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김활란 스승님의 모습과 음성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두 분 김활란 총장님과 김옥길 총장님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사는 모습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공원(Botanic Garden) 산책도 하시고 모처럼 한가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

## 믿음의 두분 스승님

글 | 김난경(강란자)(국문 59)

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마음 뿌듯한 추억입니다.

70년도 김옥길 총장님과 정충량 스승님의 서한에 김활란 총장님의 영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타깝고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스승님! 여성 교육에 앞장 서시고 평생 이화를 위해 헌신하신 두 분의 신념과 의지와 사랑과 열정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해외선교사공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WFMS)에서 파송된 이화의 창시자 메리 F. 스크랜튼 여사와 엘리스 R. 아펜젤러 여사(6대 당장)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공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화의 성장에 도움을 주신 국내외 모든 분들과 이화의 모든 스승님들 그리고 역대 총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선미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배움터요, 뿌리고 거두는 배움의 터전이요, 마르지 않는 배움의 샘터인 우리들의 모교 이화여대를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 동문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진 왼쪽) 졸업사은회 앞줄 가운데 흰옷 입은 필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양주동, 이현구, 김동명 교수들. (사진 오른쪽)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필자, 가운데는 이현구 학생님

## 아름다운 추억

글 | 전원숙(국문 59)

이화의 존경하는 선생님들, 훌륭한 선후배,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귀한 추억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 행복하고, 보람 있고, 신나는 삶이 되리라 믿고 기대해 본다.

아득히 먼 옛날 꿈과 희망 속에서 이화 캠퍼스를 거닐며 공부하던 그 시절이 마냥 그리워진다.

대학교 시절 나는 북아현동에 살면서 아침마다 숲이 우거진 애기능을 지나 개개를 넘어 학교에 다녔다. 어머니와 사촌 언니들이 공부 하였던 이화는 나에게 늘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었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때 우리는 대부분의 수업을 본관 2층 강의실에서 받았다. 김활란 총장님과 김옥길 선생님의 성경공부와 여성진로에 대한 강의는 그 당시 답답하고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이현구 문리대학장의 문학개론 시간에는 그 점잖고 준수한 용모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설레었고, 양주동 박사의 향가(鄕歌)에 대한 강의는 참으로 흥미진진하여 자칭 국보(國寶)라는 그 배짱에 오히려 찬사를 보냈었다.

시인 김동명 선생님의 시와 산문에 대한 강의시간에는 시의 세계로 마음을 활짝 열고 푸른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라성 같은 대단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은 것이다.

그 당시 대강당은 난방시설이 전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면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 추워서 우리는 곧잘 냉장고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채플은 늘 기다려졌고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5월 개교기념일이 되면 오월의 여왕 대관식에 초록빛 배꽃 무늬가 있는 흰색 한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여 기념식에 참석하였던 일, 졸업여행 때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답사하고 안동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등근달을 쳐다보며 모두가 어울러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였던 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제 이화를 떠나 미국 땅을 밟은 지도 어언 오십년이 가까워 온다. 세월의 흐름 속에 이민생활의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자리를 잡기 위하여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화에서 받은 신앙의 기초 위에 토대를 닦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훈련시키시고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였다고 생각한다.

오월의 신록 속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미래를 꿈꾸던 이화의 캠퍼스가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다. 이화의 존경하는 선생님들, 훌륭한 선배와 후배,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귀한 추억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 행복하고, 보람 있고, 신나는 삶이 되리라 믿고 기대해 본다.



눈덮힌 운동장에서 방식구들과 함께  
왼쪽 두 번째가 필자, 오른쪽 두 번째는 본교 첫 해의 유학생인 영문과 張春琴

## ‘꽃 타래 향기로다 이 동산 처녀들’

글 | 정소영(영문 62)

이 예스러운 제목은 60년대를 전후하여 이화 기숙사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기숙사가(歌)의 첫 줄이다. "꽃 타래 향기로다 이 동산 처녀들, 둘레라 둥근달아 진선미 울안에서"는 모윤숙 선배 작사, 이홍렬 선생 작곡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화’ 하면 기숙사 생활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재학생 때 3년, 그 뒤로 사감생활 3년 반, 이렇게 6년 반을 이화 교정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기숙사에 구관과 가건물 같은 별관만 있던 1958년 봄, 나는 미관(美館) 기숙사생이 되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고풍스런 돌집은 보기에도 운치가 있었고 이 대생이 된 자부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미관의 정면이 아닌 건물뒤편 방이었기 때문에 밤이면 나중에 신축된 신관 자리의 공터 무성한 잡초 틈에서 개구리가 청승맞게 울어대어 향수병을 자극했다. 지금 생각하면 2년의 학년 차는 별것(?) 아닌데 그 때는 2년 선배인 3학년 방 언니들이 어찌 그렇게 무섭고 어렵던지. 그런 중에도 그 선배들을 통해 이대생으로서의 자세, 생활태도 등을 배웠다. 한 선배는 대구에서 온 약학과 언니였고 또 다른 선배는 광주에서 온 국문과 언니였다.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나는 부산에서 온 다른 2학년 친구와 함께 방 언니가 된다. 1년 배운 경험을 밑천 삼아 우리는 실장 노릇을 한 셈이다. 그때 우리 학교의 첫 외국인 유학생이었던 대만 태생의 영문과 1학년 장춘금(張春琴)과 다른 신입생을 하급생으로 거느리고(?) 원만하게 지냈던 것을 보면 꽤 괜찮은 실장들이었나 보다.

주일이 되면 전 사생이 의무적으로 이화대학교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사생들 중에서 뽑힌 예배 헌금위원은 반드시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입어야 했다. 지금 보면 촌스럽기 그지없는 차림새이겠지만 그 때는 헌금위원의 예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이의 없이 따랐다.

2학년 때인가? 나는 중강당에서 열린 기숙사생찬송가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 상품은 조그마한 양은 밥통. 지정곡도 신청 절차도 없이 즉석에서 나가 심사위원이 지정해 주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 나가 볼까말까 마음을 졸이며 다른 사람이 부르



는 것을 들어보니 꼭 한두 군데 음정이나 박자가 틀리는 것이 아닌가? 용기를 내어 나가서 부른 찬송가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었고 평소 실력(?)대로 불렀더니 1등이 된 것이다. 장차 음악가의 아내가 될 소질이 이때 이미 있었나 보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음정과 박자가 정확한 내가 1등이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대학생활에서 결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3학년 2학기가 되자 본의 아니게 나는 사생회장이 되고 말았다. 투표결과에는 승복했지만 어이없게 쓴 이 감투(?)가 내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던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고백하거니와 나는 사생회장직이 부담스러워 4학년이 되자마자 퇴사하고 말았다. 퇴사원서를 들고 당시 사무과장이셨던 김봉순 선생님께 갔더니 예의 그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내 속마음을 꿰뚫어보시듯 "너 사생회장이 하기 싫어 퇴사하는 거지?" 하셨다. "오! 하나님, 맞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있으려고 계획했던 기숙사 생활을 아쉽게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지만 3년 동안의 기숙사 생활은 내게 많은 추억을 남겨 주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모르는 추억들이다. 학생들이 다 떠난 후 저녁을 먹고 한가하게 산책하던 빈 교정의 아름다움, 땅거미가 지는 교정에서 바라본 하늘은 얼마나 맑고 깨끗했던가! 이화교가 들어서기 전 허술한 교문을 나서면 움막 같은 집에서 팔던 버터와 설탕에 조린 건빵, 밤 아홉시 점호시간에 늦을세라 만원 버스에서 내려 헬레벌떡 학교로 들어가려는데 그만 차단기가 내려졌을 때의 당혹감, (그 시절 기차는 왜 그리 길고 또 느리던지!)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 본관 옆 뽕나무에는 유달리 버찌가 많이 열려서 봄마다 팔팔량이 처녀들을 유혹했던 일, 학교 앞의 명물 빠리와 숙녀다방에 얽힌 우리의 가슴 설레는 사연들, 기숙사에만 오면 웬 한복들은 그렇게 즐겼는지 저녁 식사 후 한복을 입고 줄지어 교문 밖으로 마실 나가던 즐거움, 방별로 순번에 따라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던 식사당번 때의 추억, 게다가 식사당번에게는 누룽지가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다. 부활절이 가까워오면 총장공관에서 새 벽녘에 들리던 김활란 선생님의 부활절 찬송가 오르간 소리, 사무실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던 "비련의 여왕"의 애잔한 음성. 이는 구관 기숙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무원의 음성에 비음(鼻音)이 많았하여 학생들이 붙여준 애칭이었다.

1961년 12월에 졸업식을 마치고 부산에서 잠깐 직장생활을 하다가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신관 4층 사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감이 라면 (B사감과 러브레터)의 멋없고 완고한 사감이 가장 먼저 연상되던 시절에 꽃다운(?) 사람들을 사감으로 채용한다하여 역시 이대는 기발하다고 촌평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때 나는 사감이 되기에는 너무 철이 없었다. 객지에서 월급 받고 독방 쓰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생으로 그 곳에서 살던 때와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지냈기 때문이다. 사감이 연애한답시고 늦게 다니지를 않나, 이런 철부지 사감이 나쁜 만이 아니었으니 젊은 사감들 거느리시느라 우리 김봉순 선생님 속까나 상하셨을 것이다.

내가 머물렀던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말 기간의 기숙사는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었다. 새벽기도, 식사기도,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외부 기독교인사 초청 특강, 그 외 수시로 그룹별로 모인 기도회 등 기숙사는 철저한 신앙훈련의 장이었다. 이화인 모두의 기도 힘이 오늘날의 이화를 키웠고 이 땅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대학교회 헌금위원들(뒷줄 오른쪽이 필자)

배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학교에서도 기숙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옥길 선생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수님들이 자주 기숙사에 오셨던 것이 기억난다. 또한 기숙사는 객지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절기 따라 가진 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서 다 함께 사가(舍歌)를 부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규율 속에서 조화를 도모한 단체 생활과 가정 분위기 속에서 방 단위의 인화 강조 등을 통하여 진정한 인성교육, 나아가 전인교육의 일익도 기숙사가 담당했다고 본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화 캠퍼스 전체를 내 집 정원인 양 철없이 신나게 살았던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화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내가 있고, 기숙사가 있었기에 이화는 더욱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 아쉽게도 내 젊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신관 기숙사가 헬러 사라져버렸지만 기숙사에 묻어 둔 나의 꿈은 영원할 것이다. 이제 아현동 산마루에 신축되는 현대식 기숙사를 통해서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김초강 외 지음 <이화 기숙사 110년 이야기> 중 출고(拙稿) "진선미 울안에서 행복했던 그 시절", pp 201-204.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에서 발췌했다.





#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된 계기

글 | 김희숙(약학 62)

이화여자 대학교는 미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 학교였기 때문에 일단 이화대학교에 입학하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무조건 학교에서 실시하는 채플에 참석해야 했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학생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 그 한 주간 동안은 정규 수업은 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 별로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고 하루에 한번은 전교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했다. 내가 약학대학 3학년 때였던 1961년 10월에 유명한 덴만 박사를 위시하여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약 10여명의 강사들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정오 12시가 되면 전교 학생들이 다 대강당에 모여 각자 지정된 자기 좌석에 앉았다. 예배 시간마다 조교가 다니면서 학생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체크하여 앞으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날은 평신도인 스미스라는 분의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다. 키가 큰 미국 사람이 통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다.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며 감동을 주는지 나는 내가 보던 책을 덮어 버리고 그의 부르는 찬양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그때 그가 부른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 그는 찬양을 마친 다음에 기타를 내려 놓고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저의 위대한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입니다."하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하는지... 나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스미스 씨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아주 부자라는 말에 나의 두 귀가 쫄긋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 6.25 전쟁을 치르고 난 한국은 너무나 가난 하였다. 자동차, 전화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소유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다. 새 학기가 되어 등록금을 내야 할 때는 농사 지은 쌀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 주시는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쪼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미스 씨가 자기 아버지

가 부자라는 말에 나는 두 귀가 쫄긋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있는 저 스미스 씨의 아버지의 양녀가 되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나는 미국에 있는 스미스 씨의 부자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스미스 씨가 마치 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강당에 모인 학생들을 향해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원했던 양녀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들었다. 그랬더니 스미스 씨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고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스미스 씨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부자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었고 그의 기도를 따라 하였다. 손을 들고 기도를 받은 학생들은 토요일 아침에 대강당으로 모이라고 광고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곳에 가면 스미스 씨의 아버지의 양녀가 되는 무슨 수속을 하는 줄 알고 큰 기대 속에 토요일 아침에 대강당으로 갔더니 집회시간에 손을 든 많은 학생들이 미리 와 있었다. 물론 양녀가 되는 특별 수속은 없었지만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필자도 그때 대강당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내가 바랬던 스미스 씨의 아버지의 양녀는 되지 못했지만 그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특별 수속을(?) 한 셈이었다. 세례식을 마친 후 "이제는 주일 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 생활을 잘하라."는 권면을 듣고 그 후부터 나는 친구와 함께 서대문에 있는 정동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나는 한 주간 동안 귀한 학업을 중단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 학교의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훗날 은혜를 받고 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화대학에 들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전도집회를 통하여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이 된 후부터 필자는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필자가 이화대학을 졸업하고 1964년 미국에 유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약사 면허증을 받아 미국 대학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중매로 이병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여 이름

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남편 목사의 목회사역을 도우면서 신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여 풀러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목사 안수도 받았다.

###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은퇴 후에 우리 부부는 "세계는 나의 교구! 복음의 나팔수로, 성령의 불쏘시개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주는 손길, 베푸는 손길!"이 되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수련회, 신학교 강의 등 바쁘게 사역한다. 나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필자 자신이 어떻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말하며 이화대학교 채플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손을 들고 영접 기도를 하도록 도와준다.

지금도 감격이 새로우며 잊혀지지 않은 일이 생각한다. 2005년 3월에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나는 이영근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예수가죽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부탁 받았다. 이 교회는 1부 예배는 러시아 원주민들을 위해서, 2부 예배는 모스크바에 와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3부 예배는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러시아에 들어와 사는 조선족 회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3부 예배 때 조선족 회중을 위해 전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 나는 간증과 함께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한 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표해 달라고 했을 때 예배에 참석한 40여명이 모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변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지금 나는 이곳 남가주 이대 동창회 선교부에서 매 주 모이는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대 동창들 중 전세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기도 수첩에 나온 120여명의 동문 선교사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교를 위해, 최경희 새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위해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교가 기독교 정신을 계속 이어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교를 축복하시고 발전 부흥 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뿐 아니라 필자처럼 예수님을 모르던 학생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학교로 사용하시며 영광을 거두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이화대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것을 믿으며 두 손 모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

## 토버머리에서의 時制

김유경(불문 84)

잠깐 비 바람이 스쳐 갔다  
꽃병섬으로 들어가는 배는  
초록의 이끼 속에 시간을 품은 바위처럼  
호수 위에서 잠시 사라진다.

만이천 년 전의 바다는 호수가 되어있고  
산호들은 제 시간을 깨고 나와  
그 호수 위에 바위섬을 이루었다고  
남겨진 소금은 그래서  
호숫가 어딘가에 염전을 지어냈다고  
시간은 공간 이동하면서 경계를 잃어버렸다.  
그 광활한 한 폭을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나는  
섬의 외길을 따라 걷는다.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내 무딘 감각이 느낌도 없이 슬퍼진다.  
물에서의 시간을 바다로 이해하려던 내 의도는  
번번이 가라앉았다 다시 떠올른다.

천 년이 되었다는 키 작은 백향목이  
절벽 틈에서 새 잎을 품어내는 시제와  
흙 속에 묻힌 푸른 물결의 시제는  
경계 위에 나란히 앉아 있다  
그러므로 이 숲의 외길이 어딘가에서  
아련한 물풀에 또 다시 뒤덮인다 해도  
저 소금 빛 같은 등대의 불빛은  
끝없이 반짝일 것이다.

내 時制는 내 문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남는다.



# 죽을 뻔하다 살아난 여름방학 농촌 계몽

글 | 최문숙(의학 66)

1960년 풋내기 병아리 1학년, 희망으로 가득찬 여름 방학에 이화대학 농촌계몽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주 순진한 나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강원도 고성, 바다가 멀지않은 작은 농촌마을에 교수님과 30명이 도착하게 되었다. 각 마을에 8명씩 배치되었고 한 달간 선배님들과 지내게 되었다. 밤에는 동네 아낙네들과 모여 하나님을 알려 드리고 싶어 땀 냄새에 젖어 밤이 가는 줄 몰랐고, 낮이면 우물가 청소와 집안 청소 등, 마을 아낙네 들을 도우며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때 어느 작고 귀여운 소녀의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 소녀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노래라고 하면서 "개아미가 물에 빠져서 고난으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감쪽같이 살리셨네"하고 그 소녀가 잘 부르던 노래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난 그 때 처음으로 선배들로부터 아주 많은 찬송가를 접하게 되었다. 고조 할머니 때부터 그냥 절에만 다니던 집안에서 자란 나에게 생소하기만 했다. 소위 말하는 신여성 교육을 도모하고자 이화대학교의 공지와 우리 이대생 나름의 모름지기 배움터 지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펴보려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선배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진포에서 멀지않은 이름없는 작은 섬으로 뱃놀이를 가게 되었다. 선배 왈 이건 극비밀이라고 누구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고 지령까지 받은 처지였고, 난 그냥 따라만 갔다. 아주 험난하게 생긴 두 뱃사공이 힘차게 배를 저어갔고, 귀엽고 발랄한 8명의 이대생들은 드디어 무인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무인도엔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모래위에 해당화가 한창 피어 있었고 바람이 솔솔 부는 쨍쨍한 여름 날씨였다. 바람 곁에 푸른 하늘은 더욱 희망으로 가득 차보였다.

간단한 점심이 끝나기도 전에 별안간 한 뱃사공이 저쪽하늘에서 시꺼먼 구름이 몰려 온다고 빨리 배를 타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금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우리가 배에 오르자마자 어느새 파도가 배에 부딪혀 뱃속에 물이 가득차게 되었고 배가 가라 앉기 시작했다. 뱃사공은 배를 뒤집어서 배를 구하려고 빨리 뛰어 내리라고 호통을 쳤다. 혼비백산이 된 우리는 전혀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뛰어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뛰어 내리려는 순간 바로 옆에 참외 보따리가 보여 참외는 물 위에 뜰 것 같아서 가슴에 참외를 얹고 뛰어 내렸는데 다행히도 물은 내 목까지 차 있었다. 간신히 섬으로 올라온 우리는 너무 놀래고 또 흠뻑 젖은 옷에다 발에선 피가 줄줄 나오고 있었고 내 카메라에선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바닥에 아마 산호가 잔뜩 깔려 있었나 보다. 신고 있던 고무신도 다 벗겨진 걸 그때야 알았다. 흑흑 흐느껴우는 선배들, 거세게 불어오는 시꺼먼 파도

와 폭풍, 금새라도 하늘까지 치솟을 듯한 높은 파도...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두 뱃사공은 서로 다시 배를 타고 파도를 타야 된다, 아니다 옥신각신 중이었다. 이 무인도는 금새 파도로 뒤덮이게 될 것 같아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

리로! "선배님들! 울음 똑 그치고 배에 오르세요."라고, 어떻게 1학년 짜리가 그런 용기로 명령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기만 하다. 간신히 배에 오른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목숨은 모두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제 살려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바다에서 구하시옵소서"하고... 뱃전에 앉아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던 중 그래도 노련한 뱃사공들이 설악산보다 더 높은 파도를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듯이 몇 번인가 타고는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근처 이화대학교 여름 캠핑 막사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부는 거친 바람소리와 흔들리는 창문소리와 배멀미 등 비몽사몽 뜬 눈으로 시간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 젖은 옷 그대로 또 맨발로 우리가 머물고 있던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마터면 처녀귀신 될 뻔 했다면서... 뱃사공 왈 6.25 때 아주 많은 인민군 귀신들이 이화대학생들을 보고 갑자기 놀라 광란의 파도를 쳤나 보라고 웃었다.

바로 엄청 큰 태풍 이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바로 그 때 그 어린 소녀의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개아미가 물에 빠져서 고난으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살려 내시었네요." 그 후, 열심히 수영도 배우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이 섬, 저 섬 바다속 형형색색, 열대 물고기들과 황홀함 속에 빠져 즐기곤 했답니다.



사진 맨 오른쪽이 필자

# 한 알의 사과

글 | 김영채(영문 59)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내가 이제 80고개를 앞에 보니 수다한 설교를 들었으나 그 중 몇몇은 나의 사람 됨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일상 생활에 등불이 되어진 말씀들입니다. 낭만을 찾고 정의를 부르짖던 문학 청춘시절에 들은 말씀들이라 더욱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지도 모릅니다.

대학 시절을 아버님의 사업 관계로 가족이 부산에 있었던 이유로 4년간을 이대 기숙사에서 보냈지요. 가끔 주일에 외출이 가능하면 영락교회를 찾곤 했습니다. 영락교회 창설자이신 故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애타게 그리며 듣고 했던 때였습니다. 설교로 보아 늦은 가을인 듯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서울발 부산행 기차 안에서 대구와 대전을 지날 때 아름답게 익은 빨간 사과들이 달린 과수원을 지나시며 느끼신 말씀입니다. '저 사과들도 다 제때를 맞아 빨갭게 익어 보기에 아름다운데 나는 이 한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저 한 알의 사과같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얻은 일들이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하신 그 날 설교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그 예쁘고 빨간 사과"의 말씀은 들은지 50여년 후 지금에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마도 빨리 달리는 기차 안에서 목사님이 보신 줄줄로 서 있는 사과나무들이 참 아름다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서서 그 광경을 새겨봅니다. 그 많은 사과들 중에는 찌그러진 사과들도 있었겠고, 벌레먹은 사과들, 썩은 사과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아 제 맛을 갖추지 못한 사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서 목사님께서 보시고 즐거움을 느끼게 한 제 맛을 지닌 보기에 "완전한" 사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완전한 사과 한 알이 되기까지는 몰아치는 눈보라와 폭풍으로 시달림도 받고 따스한 봄날의 부드러움도 즐겼고, 여름날의 찌는 더위와 뜨거운 햇살의 아픔도 느꼈을 것이며, 가을이 되어 익어가는 시절을 만나 마지막 무대에서 서서 자기들의 일 년의 결실을 보여주겠지요. 그 많은 사과들 중에 과연 얼마의 사과들이 보기에 "완전한" 사과들이 되었을까요? 문리대 차례였던 매주 수요일 아침예배 시간에 들은 한 설교를 이 "사과" 비유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Group 1: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보람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Group 2: 남에게 도움이 되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도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람들. Group 3: 사는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며 짐이 되는 기생충에 불과한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적어도 "이화인"들이라면 Group 1 이나 2에 속해야 되겠지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많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쓴 잔도 마셔야 할 때가 있겠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가 하면 작은 정성과 아끼는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도 있는 것, 작은 위안의 말로 상처 받은 마음에 웃음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의 궤도를 돌며 우리 개개인 다 "한 알의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에 약을 바르듯이 우리 생활에도 마음의 보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얻는 힘, 곧 영적 보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화인 한 알의 사과"도 모든 정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우리 이화인"에는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적어도 "이화인"이라면? \_\_\_\_\_ 답을 쓰시고 실행하세요.

나의 바람은 북미주에 거하는 12,000여명의 "이화인"들이 이화의 정신 "진,신,미"로 단장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보기에 아름답고 제 맛을 갖춘 완전한 "한 알의 사과" 이화인이 되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고문의 1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그린랜드 얼음산과 인도양 산호섬' 같은 록키산 Rocky Mountain

# 1893년의 밴쿠버와 오늘의 록키산 풍경

글 & 사진 | Yunice 윤경남(영문 58)

윤치호(1865-1945) :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 조지아 주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 한국인 최초 졸업생 (1891~1893)

Yunice 윤경남 : 1958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국제펜클럽회원, 2014년에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가다; 譯述 윤경남> 출간. 기타 포토 에세이와 번역작품 다수.

100여 년 전에 에든버러선교대회에서 '복음전도 사역에 토착교회의 위치'를 열변했던 윤치호 선생님은 1893년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을 졸업한 다음,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를 구경하고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에 CP기차로 입국한다. 시카고에서 위니펙을 거쳐 겨우 6년 된 아름다운 밴쿠버 항구도시를 방문한 것. 한국인 최초의 남감리교회 세례사이기도 한 그는 밴쿠버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가까운 그랜빌 호텔에 묵었으나 너무 지저분해서 오리엔탈 호텔로 옮겼다고 그의 영문일기 1893년 10월 14일자에 적고 있다.

Mississippi강에서 Rocky 산맥까지의 대초원을 지나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 온갖 풍경과 다양한 기후 속에 펼쳐진 계곡을 나흘 동안 여행한 다음에야 기차는 종착역 밴쿠버에 안전하게 닿았다.

"그랜빌 호텔은 너무 초라하다. 식탁은 지저분하고 식탁 위에 놓인 수프와 설탕과 빵과 피클 등이 몇 십마리의 파리떼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오리엔탈 호텔로 옮겨야겠다.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목사는 잘 생긴 젊은 분이지만 그의 설교는 '그러나'와 '하

지만도'를 하도 여러 번 반복하는 바람에 설교를 망치고 있다. 밴쿠버는 아름다운 항만 위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기후는 온화하다. 산꼭대기엔 흰 눈이 덮혀있는데 정원마다 꽃이 피어있어서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겨우 6년 밖에 안 된 마을이지만 폭넓은 우주적인 성품은 광둥,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사용하는 동전과 여러 나라 지폐가 통용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해 가을에 밴쿠버를 찾아간 우리 부부는 윤치호 선생님이 예배드린 교회를 1893년대의 지도에서 찾아보았다. 그 당시 6개의 교회가 밴쿠버 시내의 burard라고 하는 바닷가의 퇴적지대에 있었는데, 상전벽해로 고층 건물만 짝 들어차 있다.

마치 한국 강남의 옛날 말죽거리가 상류도시가 된 것처럼. 윤치호 선생님이 타고 내렸던 기차역은 옛날 그대로 시내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랜빌 스트리트에서 오리엔탈 호텔은 찾을 수 없다. 지금의 밴쿠버 호텔이라면 좋겠다.

우리는 아름다운 옛날 마차길로 둘러싸인 스탠리 공원에 들어가 산책했다. 조각 장식이 된 관문 아래 높이 솟아있는 토템 폴들을 구경하며 록키산맥을 차로 달리는 동안 큰 뿔 달린 산양들이 관광버스 앞에서 꿈쩍도 않고 먹이에만 열중해 있는 모습, 새까만 곰이 어슬렁거리며 숲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도 재미있게 구경했다.

윤치호 선생님이 譯述한 감리교 최초의 '찬미가'(1907년 간행) 제14장에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가 들어있다. 찬미가 제15장은 CP열차 창밖의 이 록키산을 바라보고 떠올리셨으리라. '그린랜드 얼음산과 인도양 산호섬, 아프리카 더운 내에 금모래 깔린 곳, 강과 산과 넓은 들 사람 산 테마다 죄의 속박 풀으라 우리를 부르네~(새 찬송가 507장)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에 타고 지나가신 Yoho 국립공원의 Spiral tunnel 건너편에 서서 Rocky Mountaineer 관광열차 안의 손님들과 서로 손을 흔들러 주기도 했다.

## 자랑스러운 고마운 내 모교

글 | 김아자(의학 63)

저는 한번 크게 내 모교 이화에 대해 감사했고 상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느낌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표현 하자면 내 등 뒤에는 어떤 커다란 힘이 나를 주시하며 돌봐주는 느낌, 분명히 나는 이화에서 배출 되었다는 자부심, 높은 곳에 있는 이화! 어느 선진국의 우수한 대학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화!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설명하자면, 저는 미국 의사 면허증을 Texas 주에서 옛날 방식의 필기시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Texas State의 의사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곳은 미국 State 중 약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Federal 면허증도 받았습니다.

## 잇는다는 것 잃는다는 것

글 | 함계선(피아노 79)

얼마 전, 간병인 자격증을 따서 어르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을 만났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요즘 돌봐드리는 어르신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내가 아는 어르신 같았다. 치매가 살짝 와서 방금 말씀 드린 것도 기억을 잘 못하신다는 것이다. 어머 어쩐 이런 일이...

몇 해 전, 시니어 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쳤었다. 가르치는 것이 전직이었던 탓에 별 어려움 없이 약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봉사했다. 무슨 복인지 어르신들께서도 자기들보다 어린 선생인 나를 참으로 좋아해 주셔서 작은 선물을 조용히 가져다 주시거나 수업이 없는 날을 택해 같이 밥을 먹자, 차를 마시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시곤 하였다. 거의가 할머니였고 또 노년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에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그분들의 이민의 역사를 들어 드리곤 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매우 좋아하셨던 할머니가 계셨다. 콜로라도 주 덴버에 사시다가 버지니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친구가 없으신 지 유독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많이 하셨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나를 초대해 주셨다. 그런 덕에 나는 그 할머니의 개인사에 대해 자연스레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Oklahoma에 갔을 때 Oklahoma의 의사면허증을 신청했더니 여러 가지의 서류 질문이 오고가는데에 아마도 근 일년 가까이 걸렸나 봅니다. 이번엔 내가 졸업한 한국의 의과대학에 대한 질문들이 장장 14가지가 있었습니다. 단과대학이 몇개나? 너의 학교의 Faculty는 몇 명이며, 도서관에 잡지는 몇 가지를 갖고 있느냐 등등의 질문은 그 당시 제 상황에서는 Oklahoma의 Licence가 필수는 아니었지만 내가 Oklahoma에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려 하였는데, 하두 질질 끌며 꼬치꼬치 묻는데 오기가 생겨서 꼭 갖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Oklahoma Medical Board에서 보낸 장장의 질문서를 이화대학에 보냈는데 (물론 모두 영어지요) 빠른 시일에 내게 답장이 왔어요. 14가지가 되는 질문의 상세한 답과 함께 이화에 대한 Pamphlet까지 첨부했더군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고 정중히 그 질문에 답을 주리라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놀랍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화로구나! 제가 체험 했던 것을 제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도 얼마나 이화가 고귀한 모교인가를 재 인식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느낌을 썼습니다.

젊어서부터 열혈 여성 사업가로 경제적 부를 쌓으시고 남들은 생각도 못하던 1960년 대 미국에 오셔서 호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유명 인사의 한국식 식사를 해드린 것을 계기로 지위가 높아져서 좋았던 이야기, 그 후 개인 사업을 하여 돈은 엄청 벌었지만 영감님이 딴 눈을 팔아서 가정적으로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 나를 친구 삼아 때로는 딸 삼아 자신의 일생을 재미있게 들려 주셨다. 영감님과 덴버에서 사시다가 주체할 수 없는 영감님의 바람기에 질려서 몰래 작은 가방을 싸서 딸들이 있는 이곳 버지니아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그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재미있고 스틸 넘치게 이야기 해주셨던 분, 바로 그 분이 지금은 그 모든 기억과 추억들을 다 내려놓고 남은 생을 사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는 순간이었다. 팍 팍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씩 잊어가는 것, 그래서 차츰차츰 잃어가는 것, 사랑했던 사람들을, 시간을, 돈을, 지위를, 그리고 가지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나를 돌아본다. 나도 이제는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의 후반에 와 있다. 추수해서 혼자만 가지려 하지 말고 좀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잊기 전에, 잃기 전에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어야겠다. 그 때가 왔을 때 새 털처럼 날아오르려면...





# 존경하는 두 분의 총장 선생님을 기리며

글 | 백말순(수학 67)

이화에 관계되는 우리 식구들! 오랜만에 대학시절을 생각하며 펜을 듭니다. 저는 8남매(딸 여섯, 아들 둘)의 막내로 태어나 딸 6명이 전부 이화 캠퍼스를 거쳤으며 며느리 2명 역시 이화 가족입니다. 셋째 언니가 남녀 공학을 간다고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무언의 카리스마로 설득하셨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낸다고요. 이화가 없는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특히 80년도 초에 대여섯 명으로 시작한 애틀랜타 동창회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선후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대단하죠!

우선 어머니가 들려주신 김활란 총장 선생님은 주말이면 예배를 드리고 큰 언니 댁에 한 달에 두 번 점심을 같이 하셨을 때 디저트로 건포도가 박힌 백설기를 유난히 좋아해서 어머니의 솜씨에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전해 주셨던 김활란 선생님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시절에 아버지(백관수)와 같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린 얘기를, 미국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해결하시면서 진행한 이화를 위한 모금운동 등등,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글 | 박영숙(경영학 86)

1800년대를 주름 잡았던 파리를 대신해 2000년대 세계문화의 중심이 뉴욕인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뉴욕에서는 날마다 지상 최고의 문화로 꽃이 피어나고 있다.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Met Opera),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ABT), 링컨 센터(Lincoln Center), 브로드웨이 뮤지컬 (Broadway Musical),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Metropolitan Museum), 모던 아트 뮤지엄 (MoMA) 등을 필두로 열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공연과 전시, 뉴욕

1970년 2월 저는 대망의 미국 유학을 떠나려고 큰 언니 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전화를 받자마자 큰 언니는 까만 차마 저고리를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선생님 서거소식에 나가시던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비행기 안에서 왜 그리 슬프고 비행기는 어디 가는지...

1985년 애틀랜타 공항에 hot pink색 차마저고리를 입고 한복차림으로 입국하신 우리 김옥길 총장 선생님.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하자마자 "그래? 이거 너 좋게" 하시며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식사기도에 하나님과의 독특한 진심어린 대화, 키모를 받으시면서도 후배들에게 환자의 모습으로 이화를 위해 모금 운동의 여정길 다니시던 존경하는 선생님. "나 괜찮아" 하시며 후배들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스런 눈길. 지금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다음날 전 에모리대학 총장(Dr. Lenny) 댁에서 아침식사를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김옥길 총장님을 위해 박영혜(의 68), 이복희(섬예 75) 동창이 베풀어 주신 대접 등 이화가족의 훈훈함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물을 마실 때는 우물 판 사람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된다." 어렵게 시작한 두 총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화라는 거대한 숲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미주에 사는 우리 이화 동창들이 이런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따뜻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성의 전당으로서 영성의 리더를 배출하는데 동참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화, 이화, 우리 이화, 진선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 우리 이화"**

의 외곽에 살고 있지만 가끔 그 최고의 문화정서와 마주하고 싶을 때는 의례히 맨해튼으로 나간다.

오늘도 동네 친구 셋이 모여 기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합동마실을 나갔다. 예약된 식당과 가까운 MoMA에 먼저 들려 한 바퀴, 현대 미술의 트렌드를 읽었다. 그야말로 'Modern'한 여러작품들, 그저 평이하고 일상적인나도 그냥 붓질 한 번이면 그려 낼 수 있을 것 같은 저 것들이 작품인가?? 이런 거대한 무지함에 걸려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제목과 작품을 묶어서 열심히 읽고 나면 그것들이 었! 하는 놀라움과 함께 생각할 끼리를 주는 예술작품으로 딱! 바뀐다

"내 안의 것이 백만가지여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요즈음의 대세가 된 이 명제를 덩달아 부풀려 부추기는 것 같지만 '표현'과 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통의 도구인지를 새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다. 표현...나는 얼마나 하며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는 금과옥조와도 같았던 "침묵은 금이다."라는 아주 오래된 명제와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일까?

그래도 오래 바라다 보고 기쁨에 잠기게 되는 작품은 역시 잭슨 폴락(Jackson Pollack)의 작품처럼 회화다운 회화였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럴 때 흘린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어서 일까.

# 사랑의 빛

글 | 박양선(경제 08)



2002년 12월, 이화에서의 나의 첫 수업은 12월의 채플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03학번인 내가 왜 입학 전 해 채플을 들어야만 했는지,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나에게 언니만 두 명이 있었는데, 언니들은 모두 이화에 다니고 있었다. 98학번 법학과 큰 언니, 01학번 사회생활학과 둘째 언니, 이 두 사람은 2002년에도 여전히 이화에 다니고 있었다. 그 중 큰 언니는 그 당시 채플이 많이 밀려 있었고, 밀린 채플을 보충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는데, 바쁜 언니는 언니를 대신하여 나를 채플에 보냈다. 채플을 참석하기 위해 대강당으로 향하던 그 당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다. "난 아직 대학생이 아니라고!"라고 투덜거리면서 학교로 향했는데, 대강당 앞 계단에서 구두를 신고 계단을 오르던 언니들, 자리에 앉아 채플을 듣기 전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명상도 하는 언니들에게선 대학생 특유의 당당함과 세련됨이 느껴졌다. 시골에서 상경한 재수생이었던 그 시절의 나는 아직 손티를 벗지 못하고 있었던터라 더 위축이 되었다. 이화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화를 다니던 내내 언니들은 내게 큰 힘이었다. 언니들은 학교 안팎으로 많은 생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특히 맛집 정보는 매우 유용했다. 또한 이화 특유의 개인주의조차도 나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세 자매가 시간 맞춰 공강시간에 만나 밥을 먹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사법고시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 외모도, 성격도, 가치관도 달랐던 우리 세 자매는 티격티격 싸울 때도 많았지만 모두가 함께 이화를 다니면서 서로 많이 의지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자매간의 우애를 더 깊이 다져갔다.

4-5년간 세 자매가 이화에서 함께 만들어간 시간은 이후의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화의 교육이념,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고,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긍지를 갖는 것을 추구했던 이화의 교육이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130년전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며 사는 데 세 자매가 뜻을 모으고, 세 사람 모두 교육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파트에 발을 담궜다. 그 시작은 첫째 언

니였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NGO 단원으로서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일 년간 파견되어 있으면서,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첫째 언니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 선생님들 역시도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한국에 돌아 오자마자 아프리카 선생님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선생님이 달라지면 아이들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선생님을 키우는 일은 느리지만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2008년 11월 HOE(Hope is Education)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교사였던 둘째와 일반회사 직장인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세 사람은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달랐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다. 첫째는 큰 비전을 제시하는 Visionary로, 둘째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Education Expert로, 그리고 나는 운영과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Administrator로서 역할을 다했다. 비록 역할은 달랐으나 우리는 모두 한 꿈을 꾸었고, 그것은 바로 교육을 매개로 한 사랑의 전달이었다.

이화의 교육이념처럼 우리도 한국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상대국을 존중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시의적절한 필요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셋이기에 견딜 수 있었고, 세 사람마저 견디기 어려운 때는 황무지였던 한국 땅에 이화를 개척해나갔던 분들을 떠올렸다. 130년전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조선의 땅에서 여성 교육을 위해 써 달라고 88달러를 기부했던 루신다 볼드윈 여사, 미국 최초의 여성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튼 여사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사랑의 씨앗이 130년 후 우리 세 자매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화에서 쌓은 네트워크는 우리 세 자매에게는 또 다른 힘이었다. 법대 출신인 첫째의 친구들은 법률 자문을, 사법대 출신인 둘째의 친구와 선후배는 교사네트워크로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맡아 들어가는 일을, 경제학과 출신인 셋째의 친구들은 회계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모두가 이화라는 이름 아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며 모두가 함께 이화의 뜻을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일조했다.

HOE는 2012년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아프리카 교육지원을 돕는 글로벌 학습 나눔공동체로서 개인과 사회, 한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혼자였다면 이미 포기했겠지만 세 사람이기에 여러 난관들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교육이라는 무형의 가치의 소중함을 지지해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이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난관도 능히 이겨나가리라 매일 매일 다짐한다. 무엇보다도 130년 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이제는 그 사랑이 계속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데 우리 세 자매가 계속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 아시아 여성과 북미주 여성 간 교육적 파트너십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 : 이화여자대학교

글 | 신장현(교육 57 / 대학원 60)

한국과 북미주 여성들 간의 교육적 파트너십이 가져온 사회변화에 대해 그 감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처럼 노년기에 있거나 혹은 선배되는 한국인들은 대개 겪으신 일입니다. 저는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3개 대학의 대학원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들 중 세계 기회를 열어주고 기초를 다져주었으며 여성도 삶에 있어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곳은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였습니다. 이화는 한국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정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886년 5월 31일, 이화는 선교사였던 교사 한 분이 가난한 여학생 한 명을 가르치며 보잘 것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화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이요 가장 좋은 여자대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성장한 이화는 한국과 북미주 여성들이 함께 한 교육적 파트너십이 얼마나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여사는 미 감리교 <여성해외선교사공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의 파송을 받아, 의료선교사인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1880년대 한국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은 귀히 여김을 받는데 비해 여자 아이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남존 여비"는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남성을 위한 것이었지 여성은 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온정어린 한국행은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 보스톤의 트레몬트감리교회(Tremont Methodist Church)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섯 명의 여성은 <여성해외선교사공회>를 결성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역(Woman's Work for Woman)" 운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낸 매주 2센트의 회비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역" 운동은 기초를 단단히 하며 보다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을 회비로 결정한 것은 모든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도 세계의 다른 여성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 많은 여성들의 열광적인 지원에 힘입어 여성 선교사 단체들은 사회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기관들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역" 운동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던 북미주의 여성들은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지도력을 배웠고, 자국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스크랜튼, 프라이(Frey), 아펜젤러(Appenzeller) 같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미주 여성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근현대식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화의 첫 한국인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 여성들이 오늘날의 이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화는 교육에 헌신한 여성들과 한국여성의 자강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이화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 사회 전역이 그로 인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화의 역사는 인내의 역사, 도전과 극복의 역사입니다. 이화는 한국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20만 명이 넘는 이화의 졸업생들이 곳곳에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역사로부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깨달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화는 57개국 774 기관과 결연관계를 맺었습니다(2012년 현재). 이화는 지구촌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고 이화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화의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이제 훌륭한 본보기로 우뚝 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버마/미얀마의 아웅산 수키(Aung San Suu Ki)여사는 "전 세계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의 능력을 강화하면 다른 이를 배려하는 관용의 삶,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은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바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수키 여사의 이 말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신장현 지음 <민음의 강: 이화국제재단 4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 가을과 단풍 친구들

글 | 최규련(간호 72)

1968년 2월 이화여대 입학식 날 장면이 떠 오른다. 여고 때의 교복을 그대로 입고 온 애넌 모습의 아이들, 벌써 털을 부러 발랄함이 엿보였던 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등록했다. 우리들 첫 모임은 과학관인 듯하다. 빛 바랜 앨범을 다시 더듬어보다 말고 은퇴한 연령대 친구들끼리의 만남을 생각하니 세월의 겹이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린다. 만남 장소에는 열여섯 명의 대학동창들이 4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나와 있었다. 마치 TV 화면에 나오는 배역들이 억지로 노인네 분장을 한 것 같았다.

낯선 얼굴들이 몇 명 내 눈 초점을 흐렸다. 내가 그들의 이름과 사십년 전의 모습을 다시 되살려 내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흘렀다. 어디 나쁜 이었을까? 그들도 나를 보고 그랬으리라. 대명 콘도 소노 팰리체에 우리는 짐을 풀고 점심시간 한정식 집에 갔다. 가을 국화로 온통 장식 한 소노 팰리체의 정문은 노란색, 자주색, 분홍색의 국화로 하트모양을 그려 우리들을 반겼다. 이 가을 풍경을 한 컷 사진에 담기 안성맞춤이었다.

우리 이민 1세대! 잘 안 되는 영어 배울라, 일 할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들 키우라, 정말 힘든 길을 택하고 살았네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매일 흰 근무복에다 똑같은 생활패턴이 지루하고 권태로웠다. 하지만 가방에 사람의 뼈를 넣고 다니며 해부학 공부에 매달렸던 이화여대 시절의 배움과 간호사 자격증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을까.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한 능력의 원천 제공은 큰 특혜였다. 내 삶에 무엇 하나 몸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일상. 만만치 않았던 삶을 이끄느라 모교와 친구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그러나 활기차게 사는 친구들 모습과 모교를 마음에 담은 이 가을에 감사한다.

우리는 대학 기숙사 생활 때를 떠올리며 옛날 미팅 하던 얘기에서, 연애했던 얘기로 밤을 지새웠다. 거기에 순한 음료가 곁들여져 우리들 마음은 현실을 잊게 했다. 우리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여대생들이었다. 아! 가을은 단풍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를 알아주는 친구들, 우리가 어떤 사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모교와 그 시절 친구들 우정은 세대가 바뀌어가도 변함이 없을 게다.

사람들에게도 사계절이 있는 이상, 우리들의 봄은 많은 추억들을 남겼으나, 이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게다. 사십을 넘긴 사람은 제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나? 이 가을 한 철을 살아 낼 단풍이 된 나는 어떤 색갈로 물들어갈까. 자동차로 몇 시간씩 산 모퉁이를 돌고 계곡을 건너 달려도 천연 미네랄이 뚝뚝 떨어질 듯 베어나던 버몬트의 빛 고운 단풍이면 좋으련만. 아니면 내장산 바위 계곡과 잘 어울렸던 울긋불긋한 단풍이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어쨌거나 내 마음 그대로가 여과 없이 베어나는 그런 단풍이면 더 무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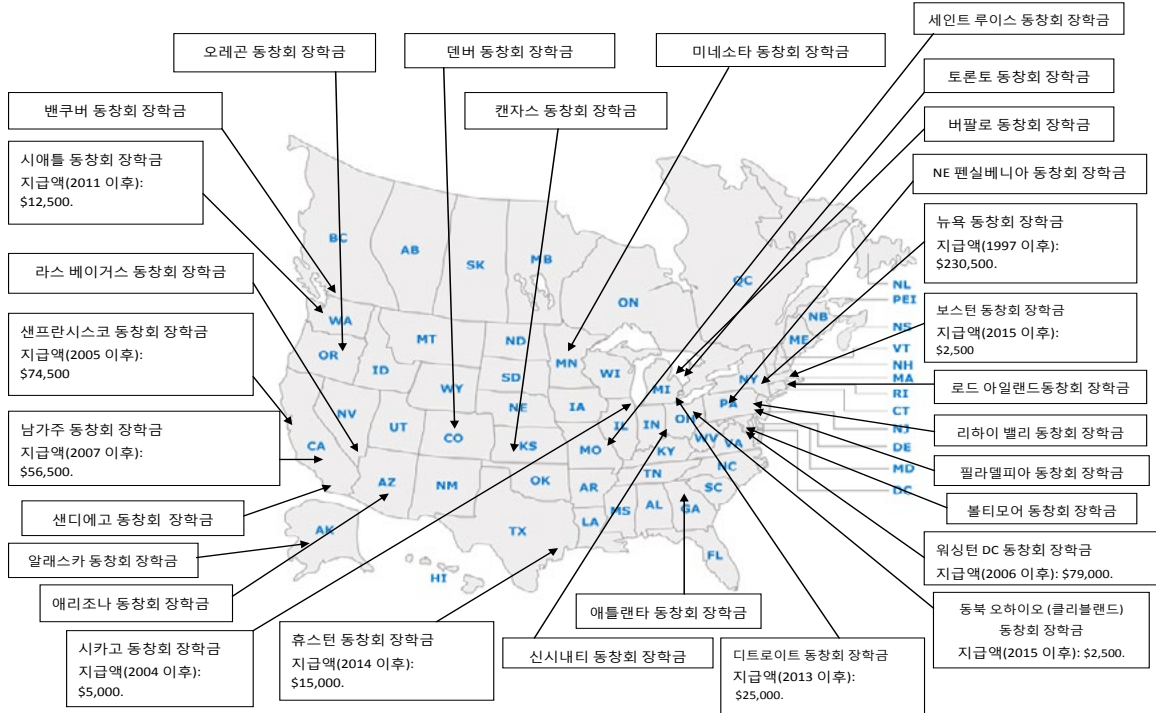
단풍은 색색이 어울려야 제격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얼굴마다 가을빛이 선연하다. 다양각색의 고운 단풍색갈이 고여 있었다. 표정은 마음의 창문. 말 한마디 몸짓마다 진한 우정이 풍겨났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동병상련의 연민, 언제 또 만나려나. 우리 이대로 세월 좀 지켜보자 친구들. 그곳에 가을비가 내리다 말다해서일까. 심신이 늙눅했다. "아! 저기. 저기" 탄성! 만고불변의 일곱 기본색. 그 무지개가 산중턱에 걸려 있었다.





## 동창회 장학금 지회별 모교 지원 장학금 현황 (2015년 봄 현재)

총 29개 지회가 모교 지원용 장학기금을 이화국제재단에 설립하였습니다. 이중 목표액에 이룬 지회 기금에서는 원금에서 얻은 수익으로 매년 모교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동창회 장학금 소식 (2014~2015년)

###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되는 지회별/동창 그룹별 장학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2014 지급액	장학금 수혜자	2015 지급 예정액	지회별 장학금	2014 지급액	장학금 수혜자	2015 지급 예정액
남가주 지회	\$10,000	최아현(과학교육 3) 외 3명	\$10,000	워싱턴디씨 지회	\$10,000	송현정(보건교육3) 외 3명	\$10,000
뉴욕 지회	\$25,000	이지원(조소 3) 외 6명	\$25,000	워싱턴디씨 국제해기대학	\$1,500	Julian Lee, Hyebin Limb	\$1,500
디트로이트 지회	\$7,500	김도연(교양 1) 외 2명	\$10,000	휴스턴 지회	\$5,000	이지연(의류 3) 외 1명	\$10,000
북가주지회	\$10,000	안나영(사회과학교육 3) 외 3명	\$10,000	보스턴 지회 ('15 신규)			\$2,500
시애틀 지회	\$2,500	주현진(사회학 2)	\$2,500	클리블랜드 지회 ('15 신규)			\$2,500

그룹별 장학금 이름	2014 지급액	2015 지급 예정액
LA 영락교회 배꽃회 장학금	\$2,000	\$1,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20,000	\$20,000

### 각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회별 장학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대상	지급액	수혜자
남가주 지회	동문 자녀	\$3,000 (3명)	Daniel S Lee, Andrew J Lee, Sohee Oum
뉴욕 지회	지역 교포 자녀 대학생	\$4,000 (2명)	Kalene Lee, Lynn Ma
	이대 졸업 대학원생	\$3,000	Eunji Lee
밴쿠버 지회	동문 or 동문 자녀	\$1,000	
보스턴 지회	동문 자녀 대학생	\$500	Eunice Roh
미네소타 지회	12학년	\$500	이혜연
시애틀 지회	U. Washington 한국어과 학생	\$1,000	Brigit Stadler
에틀렌타 지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통해	\$1,000	하승우
	11학년 ~ 대학원생		
휴스턴 지회	Christian 한인 여대생	\$2,000 (2명)	김예진, 박지수

애틀랜타지회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애틀랜타지회이사회  
후원금 \$5,000



홍정자 의학 66  
Atlanta \$3,000



김아자 의학 63  
Atlanta \$3,000



정문자 의학 66  
Atlanta \$2,000



박영애 서양화 70  
Atlanta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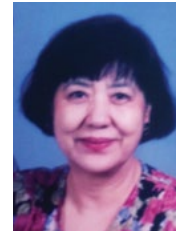
김정희 약학 79  
Atlanta \$1,000



조후자 의학 70  
Atlanta \$1,000



정호문 불문 62  
Atlanta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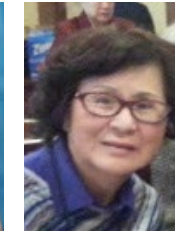
김난경 국문 59  
Atlanta \$1,000



강혜정 신방 65  
Atlanta \$1,000



김영예 의학  
Atlanta \$1,000



정정남 불문 61  
Atlanta \$1,000



김경원 가정관리 81  
Atlanta \$1,000



최문숙 의학 66  
Atlanta \$1,000



정제니 영문 64  
Atlanta \$1,000



김영례 교육심리 79  
Atlanta \$1,000



김영채 영문 59  
Cincinnati \$1,000



제갈숙경 관현악 79  
SF \$1,000

후원금 Atlanta지회

- \$500 박성민, 성정순, 손수자, 이(채)미정, 이혜선, 정(남)계숙, 조수현, 차희숙, 무명
- \$300 김자영, 김현순, 박(송)영혜, 김(이)혜경, 최(김)정원, 최성남(뉴욕지회)
- \$200 김영라, 김영하, 김영희, 김은영, 김정숙, 변명섭, 유찬희, 이종연, 조미영, 한인자, 강영자(St.Louis 지회), 서라벌
- \$100 김인옥, 김정애, 조성숙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비 후원

**당연직이사** Atlanta 지회, Boston 지회, Cincinnati 지회, Cleveland 김영미, Denver 임은혁, Houston 백화정, LA(남가주) 장계원, Nashville 이명애, NY 지회, Philadelphia 홍정임, Portland 지회, Seattle 홍성희, SF(북가주) 제갈숙경, St. Louis 지회, Washington DC 지회, Canada Edmonton 조용옥, Canada Toronto 임영희, Canada Vancouver 권갑항

**선출이사** Atlanta(김은숙, 이복희), Boston(김희선), Cleveland(노희용, 김정진), LA남가주(김정순, 김주경), NY(박문순, 안미상), Seattle(김채순, 박정혜), SF북가주(조성연, 조미정), St. Louis(최경선), Washington DC(오혜경, 장경희), Canada Toronto(홍현정), Canada Vancouver(강유순, 이은실)

**후원이사** Atlanta(이영자, 조후자, 정정남, 백말순, 박유순, 남경숙, 이원옥, 강성희, 장석란, 장명옥, 안광혜), Boston(김경애), Cincinnati(김영채), Cleveland(이선희), LA남가주(박화자, 이숙현, 장경해), NY(유덕향, 이향원, 장혜원), Seattle(이정열, 백신자), SF북가주(박명순, 양승희, 김정애, 최충자), Washington DC(신장현, 정인옥, 천현숙), Canada Toronto(이순임)

MOONS GALLERY

정호문(불문학 62)



www.moonsgallery.com

켈리 & 죠셉 김 부동산  
VINEYARD REALTY

김경원(가정관리 81)

770.638.5646  
678.361.6230



## 내쉬빌 & 차타누가 1박 2일

호텔 숙박비 | \$290(4인1실), \$310(3인1실), \$335(2인1실), \$420(1인1실)  
 포함사항 | 호텔(4인1실기준), 차량(대형버스), 점심, 입장료, 가이드포함

1일 | 10월 28일 수요일

애틀랜타 → 차타누가 → 린치버그 → 내쉬빌

- 애틀랜타 Crowne Plaza 호텔 출발(오전 9시)
- **루비 폭포** 지하 동굴속 40여 미터의 웅장한 폭포
- **락 시티 가든** 날씨 맑은 날 7개주까지 조망이 가능한 7개주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동화의 나라 동굴탐방
- **테네시 내쉬빌 다운타운** 관광
-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루비 폭포



락 시티 가든

2일 | 10월 29일 목요일

내쉬빌 → 애틀랜타

- **테네시 주청사**
- **파르테논 박물관 / 센테니얼 파크 투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재현해 놓은 공원.
- **컨츄리 음악 명예의 전당 / 박물관** 920년대이후 컨츄리 음악계를 빛낸 스타들의 모든것이 정리, 보존되어있다.
- **Farmers Market 쇼핑**
- 애틀랜타 Crowne Plaza 호텔 도착(오후 7시)



테네시 내쉬빌 다운타운

## 애틀랜타 시내관광

포함사항 | 차량(대형버스), 점심, 입장료, 가이드포함

1일 | 10월 30일 금요일 \$70(1인 기준)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조지아 주청사 (GA State Capitol)** 건물의 돔 부분이 '조지아 주'의 Dahlenega라는 곳에서 캔 금으로 덮여있어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 다운타운의 지표가 된다.
-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관** 흑인인권운동가 킹목사 기념관
- **지미카터 센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Jimmy Carter 대통령 내외가 1982년도에 세운 비정부, 비영리 연구 및 지원기관이다.
- **스톤마운틴** 세계 유일 단 한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바위산



CNN



마가렛 미첼 생가



2일 | 10월 31일 토요일 \$70(1인 기준)

오전 10시 ~ 오후 4시

- **코카콜라 박물관** 세계인의 음료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현대적인 박물관이다.
- **CNN 센터**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
- **마가렛 미첼 생가** 조지아 주 수도 애틀랜타는 마가렛 미첼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 **사이클로라마 남북전쟁 박물관** 남북전쟁에 관한 인형과 모형 등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설치되어있다.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관광 일정 및 문의 : 조성숙(678-978-2687) / 김정숙(404-386-9779)

JC 여행사 | 김영라(사회 88) | 문의 : 엘렌 770-451-1236

# EWHA Atlanta 2015 총회일정

날짜	시간	내용	날짜	시간	내용
10월 29일 목요일	03:00PM - 10:00PM 08:00PM - 10:00PM 09:00PM	호텔 체크인 / 총회등록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 친교시간	10월 31일 토요일	07:00AM - 08:00AM 08:00AM - 10:00AM 10:00AM - 04:00PM 05:00PM - 06:00PM 06:30PM - 11:30PM	아침식사(지회제공) 총회 Atlanta 명소관광 세미나 Grand Banquet
10월 30일 금요일	07:00AM - 08:30AM 08:30AM - 09:30AM 09:30AM - 04:00PM 05:00PM - 06:00PM 06:30PM - 11:30PM	아침식사(지회제공) 세미나 Atlanta 명소관광 세미나 총장님과의 만찬(Talent Show)		11월 01일 일요일	07:00AM - 08:30AM 09:00AM - 10:00AM 10:00AM - 11:30AM

# EWHA Atlanta 2015 참가 신청서

2015년 10월 29일(목) - 11월 1일(일)  
애틀랜타 조지아



이름	한글		영문			
	이화국제재단 회원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졸업년도	졸업학과			소속 지회명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Home		Cell			
	E-mail					
처음 참석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동행자 이름			
행사일정	참가회비 내역			비용	인원수	TOTAL
	OCT. 30 (FRI)	등록비 (8월 31일 이전 등록시 면제)		\$20		
	Tour (지역명소, Stone Mt. 등)		\$70			
	총장님과의 만찬		\$100			
OCT. 31 (SAT)	Tour (지역명소, Cyclorama 등)		\$70			
	Grand Banquet		\$100			
1박 2일 관광 : 10월 28일(수) 오전 9시 - 10월 29일(목) 오후 7시 / 애틀랜타 → 차타누가 → 내쉬빌 → 애틀랜타 호텔 룸 사용 선택을 표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290 : 4인 1실 <input type="checkbox"/> \$310 : 3인 1실 <input type="checkbox"/> \$335 : 2인 1실 <input type="checkbox"/> \$420 : 1인 1실				TOTAL (\$)		

●참가신청서와 수표를 동봉하시어 9월 15일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요.

Payable to : Ewha Alumni      보내실곳 : Wonok Lee / 4640 Fairway View Ct, Duluth, GA 30096

문의: 회장 김정희 (770-549-2400), 총무 조수현(508-333-1757), ewhaatl2015@gmail.com

●호텔예약안내 Hotel : Crowne Plaza Atlanta Perimeter at Ravinia / 4355 Ashford Dunwoody Rd, Atlanta, GA 30346 (Tel : 770-395-7700)

예약전용 인터넷 사이트 : [www.crowneplaza.com/redirect?path=hd&brandCode=cp&localeCode=en&regionCode=1&hotelCode=ATLCP&\\_PMID=99801505&GPC=EUA](http://www.crowneplaza.com/redirect?path=hd&brandCode=cp&localeCode=en&regionCode=1&hotelCode=ATLCP&_PMID=99801505&GPC=EUA)

전화예약 : 1-800-554-0055 (전화예약시 "EWHA University Alum")

Room Charge : \$119 + Tax (per Room per Night / Breakfast Included)

예약마감 : 2015년 10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ae Chapters of North America  
3137 Oaktree Ln. Duluth, GA 30096  
Website: [www.ewhain-na.com](http://www.ewhain-na.com).  
Email: [ewhaatl2015@gmail.com](mailto:ewhaatl2015@gmail.com)

PRSRST STD  
U.S. POSTAGE  
**PAID**  
DULUTH, GA  
PERMIT #1069

CHANGE SERVICE REQUESTED



**EHWA ATLANTA 2015 편집팀**

뒷줄 왼쪽 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경원, 강지연, 조성숙, 정소영 팀장, 정호문